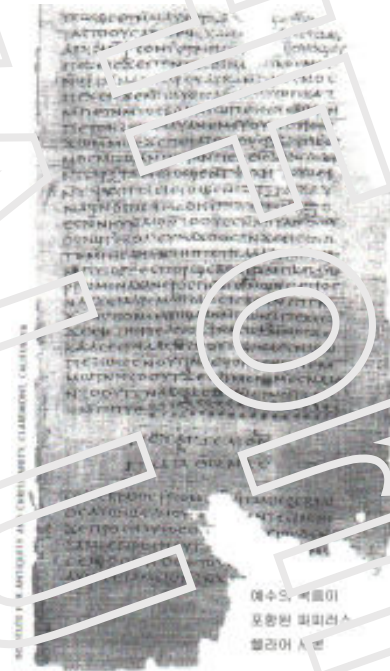


마태복음 주석(상)

원용국 박사



호석출판사

마태복음 주석(상)

저자 : 원 용 국 박사

발행인 : 호 석 출 판 사

발행사 : 호 석 출 판 사

1판 인쇄 : 20017년 11월 29일

1판 발행 : 20017년 11월 29일

정가 : 19,000원

원 용 국 박사저

안양대학교, 구약학, 신서고고학

호 석 출 판 사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62-19 선웅 빌딩 303

Tel : 031-822-9971

E-mail : choi396139@gmail.com

출판 신고 : 제 2016-000025 호

사업 등록 : 883-95-00283

Copyright # 2017 호 석 출 판 사 All rights reserved.

ISBN : 979-11-961665-0-2

머 리 말

그저께(2012년 7월 14일) 오전에 하나님께 복과 성령의 은사와 주의 은사로 말라기 4장 5-6절(히브리어 원문에 말라기 3장 25-26절)을 주석을 끝마치고, 또 사랑하는 내 아내 한영숙의 76회 생일을 맞이하여 미국에서 지난달 27일에 함께 귀국한 임영권과 임희인과 함께 내 막내아들 원은권 전도사의 아내 윤가영도 임신 7개월이 다 된 부거은 몸으로 애은이와 더불어 홍제역 근처에 있는 Mr. Pizza에서 생일 겸 나의 구약주석과 “말라기주석” 집필 완료 축하 피자 잔치를 가졌다. 또 저녁에 정릉에 있는 이상철 누렁지 백숙에서 원은권 전도사와 더불어 역시 축하 잔치를 가졌다. 참으로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길 않으셨으면,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사 127:1 끝).

또한 계속하여 “신약주석”을 쓰기 위한 준비를 지난 7월 14일에 저녁부터 7월 16일 새벽까지 마치고, 신약총론에 들어간다. 이 총론에는 F. F. Breuce의 The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1986년)의 신약부분이 크게 참고가 되었고, 신약 각권의 주석은 작년(2011년) 7월 초에 미국 New York 옆에 있는 New Jersey의 “찬양교회”(히롱기 목사)의 부목사로 있는 임은숙 목사와 그의 아내인 나의 유일한 딸 원성혜 사모의 집에 1개월 가까이 가서 있으면서 여러 신학대학교인 Princeton, Westminster, 군소신학대학교를 방문하였고, Internet을 통하여 Christian Books와 여러 서점들을 편협하여 구입하여 온 “신약주석”들을 참고하여 서술하게 되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능력이다.

Antenna House
AH Formatter
Evaluation

The contents of the book

신약주석 총론	12
신약주석 총론	12
본문	14
1. 불문계시	14
2. 문서화된 계시	15
1) 성경을 기록한 재료	15
3. 신구약 성경 구분	16
1) 신구약 언어	16
4. 정경론(正經論)	16
5. 구 신약 사본	18
(1) 구약 사본	18
㉠ 고대 사본	18
사진01. 사해 사본(이사야)	18
㉢ 주후(A.D) 시대 구약 사본	19
ㄴ. 사마리아 오경	19
ㄷ. 맛소라 사본	19
사진02. 사마리아서 오경	20
ㄴ. 고대역문	20
㉠ 헬라어 역문	20
㉢ 탈굼역(The Targums)	21
㉣ 수리아역(The Syriac Peshitta)	21
사진03. 수리아역 사본	21
㉠ 라틴역	21
6. 신약 사본	22
㉠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B). ...	22
사진04. 바티칸 사본	22
㉢ 시내산 사본(Codex Sinaiticus, ?)	22
사진05. 시내산 사본	22
사진06. 알렉산드리아 사본	22
㉣ 베자 사본(Codex Bezae, D)	23
㉤ 워싱턴 사본(Washington Codex, W.)	23
㉥ 기타 파피루스의 발견	23
사진07. 체스터 베티 파피루스	25
사진08. 나쉬 파피루스	26
사진09. 신약사본 VII. 73	29
사진10. 웨스터 베티 파피루스	30

사진11. 도마복음의 한 부분	30
① 역본들(Versions)	30
사진11. Roman territories	31
7. 신약시대의 역사적 배경	31
1) 하스모니안의 독립 전쟁	31
(1) 유다 왕국의 회복	32
● 대제사장의 명단	32
① 시몬 왕조	32
?시몬, 정의의 기쁨(구전 200년 경)	32
?오디아스 2세(구전 175년경)	32
?야손(주전 175-172)	33
?메네라우스(주전 172-162)	33
?알키모스(주전 162-157)	33
?요나단(주전 152-142)	33
?시몬(주전 142-134)	33
③ 아리스토틀로스 1세(주전 134-103)	33
④ 알렉산더 안나이스(주전 103-76)	33
⑤ 힐카누스 2세(주전 76-67, 63-40)	33
⑥ 아리스토틀로스 2세(주전 67-63)	33
⑦ 안티고노스(주전 40-37)	33
(2) 하스모니안과의 투쟁	33
① 유다의 아들, 맛타디의 독립	34
① 성벽과 성채들	35
.....	35
② 상부 도시와 Akra	36
③ 체육관, Xystos와 율슨 아취	36
④ 계단길과 못들	36
⑤ 베데스다의 하스모니안 못	37
2) 바리새인들	37
3) 사두개인	38
4) 에센파(Essenes)의 콤란의 거주지	38
사진23. 사해 콤란 제4동굴	39
① 두루마리들	40
주후 9세기 경	40
사진28. 하박국 주석의 일부	40
② 사해 집단의 문서들	40
(ㄱ) 단체의 두루마리들	40
(ㄴ) 다메섹 사독의 문서	41
(ㄷ) 주석들	41
(ㄹ) 의의 교사	42
(ㄴ) 감사의 두루마리	42
(ㄷ) 구리 두루마리	43
가죽 성구함의 외부 모습	43

(6) 성경과 외경	43
(2) 옛센 운동의 다른 분파	44
1) 다메섹 지역	44
2) 홀돈한 격리지의 다른 집단 집단	44
5) 헤롯의 시대	45
(1) 방종과 잔인성	45
사진31. 헤롯시대의 팔레스틴	46
(2) 헤롯의 유적들과 도성들	46
사진33. 헤롯의 궁전들과 성전 구조	46
(4) 티로피네스과 하구 도시	47
넓은 계단 길 밑에 놓인 지하 방들	48
사진41. 암소인 예배 제물 광경	48
(1) 시대적인 관계	49
(2) 지리적인 관계	50
(3) 사건	50
2. 로마의 역사적 배경	50
둘째는 지리적인 문제이다.	51
셋째가 문화이다.	51
3. 유대 역사가 보여주는 배경	52
제1기, 파사시대(주전 537-333).	52
제2기, 헬라시대(주전 333-167).	52
제3기, 마카비시대(주전 175-165).	52
제4기, 하스모니안 왕조(주전 135-63).	52
마태복음주석	53
1) 유대 기독교인의 복음	53
1 Q 6.20b-23b, 27-35, 36-45 46-9; ..	54
2 Q 9.57-60, (61-2); IO.2-II, I6, (23-4?); ..	54
3 Q II.2-4, 9-I3;	54
4 Q I2.2-7, II-I2;	55
6 Q I3.24; I4.26-7; I7.33; I4.34-5	55
(Markus RockmuehlDonald A. Helgner.	55
The Written Gospe, Cambridge, P.45) ...	55
도마복음100	55
또한 마태복음 3-11장의 순서	56
주제	56
Q의 순서	56
마태복음의 순서	56
마가복음의 순서	56
2. 요단	56
3. 이사야 예언	57
4. 독사의 자식들	57
5. 심판 선언	57
6. 오시는 이	57

7. 꺼지지 않는 불	57
8. 예수의 세례	57
9. 걱정하는 이들	57
10. 시험 이야기	57
11. 나가라	58
13. 산상설교(1)	58
14. 산상설교(2)	58
15. 산상설교(3)	58
16. 산상설교(4)	58
17. 산상설교(5)	58
18. 산상설교(6)	58
19. 산상설교(7)	58
20. 산상설교(8)	59
21. 산상설교(9)	59
22. 산상설교(10)	59
23. 산상설교(11)	59
24. 산상설교(12)	59
25. 가버나움	59
26. 백부장 믿음(1)	59
27. 백부장 믿음(2)	59
28. 백부장 믿음(3)	60
29. 요한의 질문	60
30. 요한에 관해(1)	60
31. 요한에 관해(2)	60
32. 요한에 관해(3)	60
33. 요한을 배척	60
34. 지혜의 자녀	60
35. 제자도	60
36. 추수의 주님	60
37. 양을 이리 중에	60
38. 가지지 말라	60
39. 집에 들어가	61
40. 평화의 아들	61
41. 마땅한 대접	61
42. 병자를 고치라	61
43. 먼지를 털라	61
44. 소돔	61
45. 세 고을	61
46. 너를 영접하면	61
47. 감사 기도	61
48. 주의 기도	61
49. 기도의 확실함	62
50. 바알세불 논쟁(1)	62

51. 바알세불 논쟁(2)	62
(소기천, Ibid. pp.208-210)	62
2) 모든 민족들을 위한 복음	63
3) 교회를 위한 복음	63
4) 주의가 필요한 복음 구성	64
5) 기록이 근거한 복음	65
그 왕국의 법	65
주제 : 왕을 거부	65

Antenna House
AH Formatter
Evaluation

Antenna House
AH Formatter
Evaluation

신약주석 총론

신약주석 총론

이 부분은 신약주석에 들어가는 총론 또는 입문으로 저자는 이 부분을 귀중하게 본다. 그 이유는 신약이 구약에 근거를 두었고, 구약은 신약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진리와 구원의 좌표를 찾아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만 아니라 신약시대와 교회시대에 좌표를 잃고 방황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진리를 율법으로 잘못 오인하고 방황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신약시대라고 하는 잘못 중에도 큰 잘못을 저지르는 학자들이 있다. 지금이 신약시대인가? 지금은 교회시대가 아닌가!

저자는 이 총론에서 신약의 권위만 아니라 신약의 사본과 전경과 신약의 언어에 관하여 생각하고, 신약의 고고학적 발굴물들만 아니라 신약의 배경과 신약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연대기와 종교적 배경을 연구하고, 신약의 교리의 발전을 생각하였고, F. F. Bruce는 전문적인 여러 학자들을 동원하였으나, 저자는 그것에 근거하여 개론적으로 취급하겠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전문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앞에서 언급한 책을 참고하라(The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 Zondervan, pp.997-1118)ression.

AH Formatter
Version 6.5

본문

1. 불문 계시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구속의 역사는 시초에는 구술에 의하여 주어졌다. 그 구술적 전달은 최초의 시대로부터 족장시대까지이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선사시대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 또는 한 소규모의 도시국가 시대이다. 그 당시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사는 성령의 역사로 선택된 개인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다시 성령 안에서 그 가정에서 교훈과 교육으로 주어져서 그 가문을 이어 내려오면서 그 가문의 빛과 영광이 된 것이다. 즉 종교적인 면에서 전통과 유업이 된 것이다. 그러다가 후에 한 민족 내지 국가가 될 즈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따라서 문서화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법이요, 국가의 헌법이 되었으며 전 민족과 국가에게 그 내용이 번질이 되거나, 또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지기 위하여 문서화 되었다.

그 예는 신구약에서 볼 수 있다. 구약 예레미야 36장 4절 요한복음 16장 4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다. 본문에서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교훈과 구속사역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바로 깨닫지 못하였다. 후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기억되게 하리라는 것이다. 그 일은 그 제자들이 잘나고 지혜와 기억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둘째는 주님이 떠나신 후에 그 주님께서 자기 대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다.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는 “진리의 성령”이다.(요 16:26). 그는 “영원토록 성도와 같이 계시는 진리의 영이시다”(요 14:16-17). 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요 14:26-27). 셋째는 “그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계시와 사역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전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약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의 의사가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서 역사했고, 성령께서 동일하게 감동했고 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일하셨다. 그러므로 구약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안에서 기억나게 하고 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이고(계 1:19. 단 12:4), 둘째는 신앙의 역사이다(요 21:25). 전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선택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다. 보통 ‘언약’이라고도 하고, “계시”라고도 한다. 또 후자는 그 언약에 따라서 택한 사람에게 주신 체험과 사역이다. 그것은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기록한 것으로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은 주전 1450년 이후부터 있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성령의 감화에 따라서 기억 또는 구전된 것이다.

그 기억과 구전된 내용은 단순한 것일 것이다. 그 내용을 받은 방법은 인격대 인격, 즉 개인대 개인의 계시의 역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 이야기함과 같이 만나서 주신 것이었다(창 3:8). 즉 하나님의 계획과 활동이 하나님의 끝없는 계시를 통하여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찾아오셔서 언약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다. 다름에 타락한 인간에게 구속의 약속이 있었다. 그 약속은 죄가 극심한 노아기 시대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되 그 당시의 인간들을 물로 멸망시킨 것이다(창 7:7). 하나님의 활동은 점진적이며, 하나님의 계시는 전진적이었다(창 9:12-17).

족장시대에 첫 번째 계시는 창세기 11장 27절에 있었는데 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택함을 받은 자, 조상들과 그 족장들과 관계된 것들에게 주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택한 자에게 계시가 주어졌다.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각면적인 출현(창 12:7)이었다. 그 출현은 처음에는 말씀을 통하였고(창 15:1), 인격적 교류를 통하여(창 14:19, 주위으며, 또 이상(Vision)과 꿈으로도 있었다(창 15:1, 12, 17, 창 28:7, 37:5).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어 말씀하였다(창 20:7, 18:22). 또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주셨다.

2. 문서화된 계시

위와 같은 계시는 조상시대를 지나서부터는 개인이나 가정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주어지게 되었다. 계시가 하나님에게 의하여 선택된 민족에게 주어질 때 그 민족의 대리자인 지도자에게 언약으로 주셨다(출 24:4-8, 17:14, 34:27, 민 33:1-2, 신 31:9, 24-26). 그 언약을 받은 그는 그것을 기록하여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보관했다가 7년에 한 번씩 다시 강론하였다. 또 경원토록 간직하게 하였다. 그것은 돌에 기록하는 방법과(신 27:2-3, 8)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이다(신 28:58, 61, 계 1:22). 또 등사도 하였다. 즉, 복사를 하였다(출 17:16, 31:9, 26, 왕하 22:8, 대하 34:14). 그것은 모세오경을 위시하여 요한계시록까지이다. 성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하는데 오경에서 말라기까지 39권으로 오실 메시야가 약속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연후에 그의 사역과 말씀을 기록한 것은 신약 27권으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이다.

1) 성경을 기록한 재료

이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재료는 성경에 근거하면 세 가지가 있다. 즉 돌, 가죽두루마리, 파피루스이다. 오늘날은 가죽두루마리와 파피루스뿐이다.

첫째, 돌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도 주셨다(출 24:12, 31:18, 32:15-16, 신 4:15, 5:22, 9:10, 10:4).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시내산에 들어가서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토라(???)를 기록하라고 하였다(신 27:2-3, 8). 그러나 고고학에 의하여 그 증빙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사해사본 중에 “기브리엘의 계시”가 있다.

둘째는 가죽두루마리이다. 이 가죽두루마리는 오늘날 고고학에 의하여 수없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원본이 아니고, 그 사본인데, 그 사본은 원본에서 등사한 것이다. 모세오경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이다. 그 등사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이다(신 17:18, 31:9, 26, 왕하 22:8, 대하 34:14).

끝으로 파피루스(Papyrus)이다. 이 파피루스엔 기록된 성경사본은 극히 적다. 그것도 오직 성서고고학에 의하여 발견된 것에 근거한 것이다. 구약이 1,346권이고, 신약이 4,000권이다. 그것이 적은 이유는 속히 부패하고 벌레에게 먹히고 파괴되기 때문이다.

3. 신약 성경 구분

1) 신약 언어

신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구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나, 예언서 일부분이 아람어(Aramaic)로 기록되었다. 그 아람어로 된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10장 11절, 다니엘 2장 4절-7장 28절, 에스라 4장 8절-6장 19절, 7장 12절-27절 등이다. 이들 아람어는 그 당시 공용어였고, 국제어였는데 성경 작자들이 그 당시의 공문서와 국지적인 교류문서와 그 사건을 인용한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히브리어는 셈족 방언에 속하는데 셈족방언이란 창세기 10장 22절에 나타난 대로 노아의 큰아들 셈의 후손을 중시한 족속들이 고대 동쪽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용했던 언어들이다.

셈족 방언 중에는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죽은 방언도 있거니와, 아랍어(Arabic), 히브리어 등 현대 아랍인과 유대인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들도 있다.

셈족어 중 유명한 4대 방언은 동방셈족어로서 아카디아어(Akkadian), 남방셈족어로서 아라비아어, 북방 또는 서북방 셈족 방언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이다. 이외에도 셈족어 중에는 수리아어(Syriac), 페니키아어(Phoenician), 우라르티어(Ugaritic), 에티오피아어(Ethiopic), 나바티어(Nabatean), 모압어(Moabite) 등이 있다.

이에 반하여 신약의 언어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는 여러 분파가 있다. 즉 도릭(Doric)어는 간결하고 강인한 말투이며, 아에올릭(Aeolic)어는 섬 사람들의 소박한 언어이며, 이오닉(Ionic)과 아티크(Attic)어의 유창하고 균형이 잡힌 말들이 함께 섞이게 됐다. 그 원인은 마케도니아의 필립왕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가 동방 원정을 함으로 도릭국가들이 통일되고 그들 사이에 빈번한 접촉으로 자주 쓰이는 대화로 언어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코이네이다. 그 코이네(? κοινή διαλεκτα?)는 “보편”이란 뜻이다. 이 헬라어는 헬라시대(B.C. 300-A.D. 500)에 일반인들이 보통으로 대화에 사용된 언어이었다. 물론 그 때에 사용되지 않은 사어(死語)도 있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 코이네인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되었다.

4. 정경론(正經論)

정경은 히브리어로 카네(n)인데 헬라어에서는 κανον으로 번역되었다. 그 말은 신약에 두 번 기록되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갈라니아서 6장 16절이다. 그 단어는 구약에서는 에스겔 40장 3절에 의하면 “갈대”, “막대기”란 뜻이 있다. 그것은 점점 의미를 주어 다른 물건을 조정하는 “표준”, “자”로 되었다. 즉 권위의 기초가 되었다. 성경에 있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아다나시우스(Athanasius, A.D. 350)이다.

그 정경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이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같이 의심없이 정경으로 인정하고 신앙하였다. 동방교회에서 주후 360년에 라오디게아(소아시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정하였다. 서방 로마교회에서는 주후 397년에 칼타기(아프리카) 회의에서 정경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개신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정하게 된 것은 어떤 회의에서가 아니라 ① 교회 자체가 정경으로 믿어온 것이다. 즉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와 표준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딤후 3:16, 벧후 1:21).

그렇다면 그 정경 결정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에왈드(Ewald)는 “구약 모든 책이 기록된 때에 기록한 글이라는 의의가 없었다. 그러나 후대인들이 신성시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고등비평가(High Criticism)는 딜만(Dillman)이다. 아히콘(Aichhorn)은 역사적인 면으로 보았는데, “그 문서들이 신성시 된 것은 그 문서들의 고대성이라”고 했다. 또 하인리히(Hitzig)과 같은 이는 언어적인 면에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정경의 결정 원리는 히브리어로 된 사실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과 확신은 다르다. 성경의 원리는 첫째, 성경 자체가 증거한다.

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므로 이스라엘은 그를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계약된 원리에 있다(출 19:8, 20:2-3, 24:7-8, 수 24:16, 18, 삿 6:3, 10, 심삭 12:6-7, 삼하 7:23-24, 호 12:9, 13:4, 암 2:10, 3:2).

② 구약의 모든 책들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이다”고 증거하는 사실들이다(왕하 23:24-25, 18:1-6). 신약 성경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한다(딤후 3:15-16, 벧후 1:20-21).

둘째,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권위를 따르게 된 것이다(눅 24:44-49).

셋째, 고대 문서들과 고대 학자들이 성경의 정경임을 증거한다.

㉔ 탈무드(Talmud, 유대인 전설집)의 바바 바드라(Baba Batri) 편은 구약문서의 목록을 포함하는데, 현존하는 우리의 구약 성경과 같다.

㉕ 제롬(Jerome)도 현존하는 성경의 목록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각경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정경시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㉖ 유대 역사가요, 학자인 요세퍼스(Josephus, A.D. 100)는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일정한 계시의 기간에만 기록된 것이다. 즉 모세로부터 아락사스나왕(405-425 B.C)때까지에 기록된 것이다”고 하였다. 즉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가 정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경은 기록자나, 그 역사성이나, 어떤 인간의 신성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받아 신앙하는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5. 구 신약 사본

이하에서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문제는 사본 문제이다. 오늘날 성경 사본은 약 5000 여개에 달한다. 그것을 분류하면 구약사본은 약 1046 여개이고, 나머지 약 4000 여개는 신약사본이다. 그 연대는 최고가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3세기경까지이다.

이런 사본들은 회당에서도 사용되었고, 후에는 개인용으로도 되었다. 그것은 성경이 보여주며 심지어 성서고고학이 밝혀주고 있다. 이것들은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Papyrus)에 기록되었으며 그 사용된 잉크와 글자의 형과 글자의 배열들이 다양하다.

(1) 구약 사본

㉠ 고대 사본

고대 사본이란 주전(B.C.) 시대에 작성된 사본이다. 1947년 사해문서가 발견되기까지는 구약사본이란 거의 전부가 주후(A.D.) 시대에 작성된 것들이었다.

사해 서북 해안선 고지대에 묻혀 있는 쿨란계곡(Wadi Qumran) 암혈에서 발견된 사해문서는 구약사본학에 새로운 기원을 이루어 놓았다. 이 쿨란계곡은 이 사본이 발굴된 이후(1950년)에 성서고고학자들에 의하여 탐색되게 되었는데, 그때에 100개의 동굴들이 발굴되었다. 이 동굴들 중에는 대부분이 자연동굴이었고, 성경사본과 관계된 인공동굴들은 14개에 불과하였다. 그 14개의 동굴들 중에도 제1호(C1)와 제4호(C4)가 더 유명하다. 그 이유는 이 두 동굴에서 구약사본과 관계된 많은 부분의 사본들이 발견되었으며, 또 그 사본들이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제1호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은 이사야 사본인데, 두 개의 두루마리로 되었으나 이사야서 전 내용이 있으며 전 내용이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또 제4호 동굴에서는 수천개의 단편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미 식별 판독된 것만도 942여종의 사본이며, 이 중에서 100여개는 구약에 속한 시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호 동굴에서도 약간의 성서사본이 발견되었으나, 출판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제5,6,7,8,9,10호의 동굴들은 별로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지 못했으나, 제11호 동굴에서는 레위기의 몇 부분, 시편 사본의 발췌된 것, 그리고 아람어 방언으로 된 사본이 발견되어 주목을 끌었다.

사진01. 사해 사본(이사야)

그 많은 사본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전 사본이 부분적으로나마 거의 다 포함되어 있으며, 아직 에스라서만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 판독되지 않은 10,000여개의 단편들이 있는데 그 속에 무슨 귀중한 사본이 있는지 연구하여 보아야 한다.

⑥ 주후(A.D) 시대 구약 사본

이 시대의 사본은 적지 않게 있다. 그 사본들 중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본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ㄱ. 성 피터스버그 사본(St. Petersburg Codex)

신약시대에 발견된 구약사본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내용은 후선지서 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 소선지서에 관한 것이다. Aage Benzen 등 많은 학자들은 이 사본이 A.D. 916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Ernest W. Weirich은 A.D. 950년경으로 본다.

ㄴ. 대영박물관 사본(British Museum Oriental 4445)

이 사본은 오경 사본으로 사슴으로 된 본문을 기록한 것인데, A.D. 850년경으로 본다.

ㄷ. 모세 벤 아셀의 사본(The Codex of Moses ben Asher)

이것은 A.D. 890-89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며, 일명 레닌그라드 사본 B-19A라고도 한다. 이 사본은 전 구약성경을 포함하는 사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며 한 이브리 성경의 표준적인 위치를 가지는 킬텔 히브리어 성경(Kittel's Biblia Hebraica)의 기초적 역할을 하였다.

이 사본은 원래 필사자 Moses ben Asher의 아들인 Aaron ben Asher에 의하여 보관되어 오다가 Aleppo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소유가 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됨을 허락치 않았다. 그 후에 이스라엘 국가에서 구입하여 보관하므로 말미암아 알려졌다.

ㄷ.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오경이 히브리어 성경 사본으로 간주되는 것은 이것을 오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오경이 사마리아어로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때문이다. 가장 오래된 사마리아 오경의 사본을 사마리아 종파에서 보관하고 사본의 출판을 금하고 있다.

기독교 사회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마리아 오경 사본은 A.D. 1616년 이탈리아인 여행자 Peter della Valle란 이가 다메섹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들로부터 구득하여 구라파로 가져온 것이다. 이 사본이 1945년 파리에서 출판되었으며, 1957년 런던에서도 출판되었다. 현재 뉴욕 시립도서관에 보관된 사마리아 오경의 사본도 유명한 것이며, 작성시대를 A.D. 1252년으로 본다.

ㄹ. 맛소라 사본

히브리어 “맛소라”란 말은 “전통”이란 뜻인데, 이 학파에서 히브리 성서의 정확한 전통을 실리려는 노력에서 기인된 것이다. 맛소라 학파는 주후 5세기 말경에 가버나움 호수(Lake of Capernaum) 근처 디베리아(Tiberias)에 유대인의 학술 본거지를 만들고, 성서본문 보존과 전승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든 구약의 사본들과 고대 역문을 참조하여 히브리 성서 본문의 전통을 확립했으며, 이들이 보존한 히브리 성서의 표준적 본문은 주후 6세기에 이르러 채택되었다.

사신02. 사마리아서 오경

맛소라 학자들은 당시 난립되어 있던 히브리 성서 사본들을 모집하여 성경본문의 일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성서본문 일원화 작업은 순조로이 성취되었다. 그들은 본래 자음만으로 된 히브리 성서본문에 모음을 만들어 붙여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약 7세기경에 이 사본이 완성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히브리어 성경이 24권으로 되었으며(상?하가 구분이 없이 하나로 됨), 또 주후 200년경에 유대인의 구전 율법의 해석서인 미쉬나(The Mishnah)에 근거하여 절로 나누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맛소라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그런 성경을 전수하기 위하여 피땀을 흘리며 수고를 많이 한 이들이다.

ㄴ. 고대역문

구약의 고대역문은 헬라어, 아람어, 수리아어, 라틴어 등 네 가지인데, 이 역문들은 히브리 원문에서 번역한 것과 그 고대성으로 유명하다.

㉠ 헬라어 역문

헬라어로 된 구약의 고대역문은 70인역(Septuagint, Lxx), 또는 알렉산드리아 역본(The Alexandrian Version)이라고 부른다. 이 헬라어 역문은 구약의 고대역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일 뿐 아니라 세상에 알려워진 그 어느 책의 역본보다도 오래된 것이다.

헬라제국의 알렉산더대왕이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애굽에다 세계적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한 것은 332 B.C경이다. 알렉산더대왕의 두력정복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에 헬라어로 하여금 국제적 방언의 위치를 가지게 하였으며 수많은 유대인이 애굽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하게 되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과 그 종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후대했다. 알렉산더의 후계자 톨레미(Ptolemy I, 323-285) 역시 유대인의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만들고 박물관, 대학, 도서관 등을 설립하였다.

톨레미 1세가 죽은 뒤 톨레미 2세(Ptolemy II, Philadelphus, 285-246 B.C)가 자기 부친의 뜻을 따라 도서관 사업을 계속하여 당시 유대인 대경전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도서관에 성비하도록 주선한 것이다.

그는 유대인 12지파에서 신앙과 학식이 겸한 학자 6명씩 72명을 초청하여 그것을 번역하게 하였다. 그 학자들은 오랜 시간을 허비하여 그것을 번역했는데, 오늘날 학자들은 대개 주전 280년경으로 추산한다.

?아퀼라 역문(Aquila's Version) : 이것은 주후 130년에 작성된 것으로 주후 2세기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역문은 주로 유대인의 외당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대체로 여자적 역문이다.

? 데오도손 역문(Theodotian) : 이 역문은 70인경과 히브리어 원문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려는 번역이다. 제롬(Jerome)에 의하면 데오도손은 유대계 기독교인으로 아퀼라(Aquila) 이전 사람이라고 한다. 이 데오도손 역문은 초기 기독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다.

? 시마크스 역문(Symmachus) : 이 번역은 주후 2세기 말경에 작성된 것으로 아퀼라(Aquila) 역을 개역한 것이다.

? 오리겐 육조경(Origen's Hexapla) :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겐(Origen, A.D. 185-254)이 작성한 것이다. 이 육조경(六條經)은 제1열에 히브리어 자음으로 된 구약본문이 기록되고, 제2열에 히브리어 본문의 헬라어음역, 제3열에 아퀼라역, 제4열에 시마크스역, 제5열에 오리겐이 개역한 70인경, 제6열에 데오도손역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위대한 역본은 가이사랴(Caesarea) 도서관에 비치되어 학계에 많은 도움을 주며 왕이나 마흐벳교도에 의하여 불태워졌다(A.D. 538).

⑥ 탈굼역(The Targums)

탈굼역은 헬라어 70인경처럼 히브리어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아람역이다. 탈굼이란 말은 아람어로 “해석한다”, “설명한다”란 뜻인데, 구약의 설명문이다. 이것은 주후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긴다. 이 탈굼의 특징은 구약 전체가 아니고, 선지서 탈굼, 성문서 탈굼 등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분이다.

⑦ 수리아역(The Syriac Peshitta)

수리아어는 아람어와 같은 방언으로 팔레스틴 북방에 거주한 기독교인들이 사용한 방언인고로 기독교 아람어라고 한다.

수리아역은 페쉬타라고도 하는데, 페쉬타란 말은 “단순하다”란 뜻이니 수리아역이 성경원문의 뜻을 간단 명료하게 드러낸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그린(W. H. Green)은 수리아역이 고대역문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이 역문이 70인경과 비슷하다고 한다.

사진03. 수리아역 사본

⑧ 라틴역

이 라틴역은 몇 가지가 있는데, ① 고대 라틴역이다. 이것은 주후 200년경의 것으로 이타라역(Itala Version)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고 헬라어 70인경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므로 역문으로서의 권위가 약하다. ② 불가타역, 이것은 제롬(Jerome)이 로마감독 다메섹으로부터 이탈리아역을 헬라어 70인경과 대조하여 개역할 것을 위촉받았다. 그는 주후 383년에 지편을 개역했고, 그후 계속하여 15년이란 긴 세월을 완성했다(A.D. 390-405). 이 역문은 구약 전부를 취급한 것으로 성경역문 중에서 저작이라 하겠다.

영어성경의 최초역은 위클리프역이다(Wycliff Version 1380-1382). 이것은 후에 틴달역(Tyndale Version)과 제임스역(King James Version)이 그 계이다.

6. 신약 사본

㉔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B).

이것은 사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 이 사본은 약 4세기의 것이다. 이 사본의 내용은 표준이 되고 있는데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히브리서 9장 14-13장 25절과, 창세기 1장 1-46장 28절, 시편 105장 27-137장 6절과 빌레몬, 계시록이 빠져 있는 것이다.

사진04. 바티칸 사본

㉕ 시내산 사본(Codex Sinaiticus, ?)

이 사본은 발견된 장소인 시내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인데 성 카타린(St. Catherine) 수도원에서 발견한 것이다. 독일인 진젠돌프(Tischendorf) 백작이 1844년에 여행중 이 장소에서 발견했고, 1859년에 전 사본을 연합하게 되었다. 그것은 후에 카이로에서 러시아를 거쳐서 현재는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사본이 기록된 연대는 주후 551년으로 본다.

사진05. 시내산 사본

㉖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nus A)

일명 A 사본이라고도 하며, 그것을 필사한 장소를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다가 지금은 영국 박물관에 있다. 이 사본은 신약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0절-3장 52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12장 6절이 빠져 있다. 그리고 로마의 크레멘트 제1서와 제2서의 일부가 들어있다. 이 사본은 5세기 말의 것이다.

사진06. 알렉산드리아 사본

㉗ 에브라임 사본(Codex Ephraemi Rescriptus, C)

이 사본은 일반적으로 C 사본이라고도 하며, 5세기에 베낀 것이며, 낡은 가죽에 썼던 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베낀 것이다. 이 사본은 지금 파리의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본은 데살로니가후서와 요한 2서가 없고 그 밖의 다른 책들은 완전하지 못한 형태도 있다. 이 사본의 특징은 α 식과 β 식도 아닌 중간형으로 α 와 β 이 두 사본을 놓고 필사한 듯하다고 한다.

㉔ 베자 사본(Codex Bezae, D)

이 사본은 5-6세기경에 필사된 것으로 생각되며 일명 D라고 한다. 이 사본을 베자(Bezae) 사본이라고 한 것은 칼빈(John Calvin)의 추계자인 베자가 1562년에 프랑스의 리용(Nyons)에 있는 성 이레니우스의 수도원에서 얻은 것으로 1581년 캠브리지 대학에 기증했다. 이것은 본래부터 구약이 들어있지 않았으며, 복음서와 사도행전(20:29-끝까지 파손)과 공동 서신들의 조각들(요한 3:11-15절은 라틴어로)이 들어 있다. 이 사본은 왼편에 헬리어 문헌과 오른쪽에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 사본의 특징은 δ 식에 속한다.

㉕ 체스터 베티 파피리(The Chester Beatty Papyri)

1930년경에 “프로 베티” Mrs Beatty가 이집트의 상인에게서 샀다. 신구약의 여러 문서인 기초문서이다. 여기에는 삼부로 나누어졌는데 바울의 목회서신, 공동서신(야고보 5장)을 제외한 신약 전부를 가지고 있다. 이 사본은 3세기경에 필사된 것으로 본다.

㉖ 워싱턴 사본(Washington Codex, W.)

이것은 미국의 테트로이그 프리(Mr. C. L. Freer)가 이집트의 기기로에서 아라비아 상인에게서 샀다. 1906년에 187개가 있는 마가복음만 있는데 서부식이다. 이것은 4-5세기에 쓰여진 것이다. 그 외의 사본은 저자의 “성경사본과 고대 공동 사본 연구”. pp.226-252를 참고하라.

㉗ 기타 파피러스의 발견

이것들은 1887년을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발견한 파피러스 사본들인데 그 대다수가 애굽의 것이다.

P. Oxy.=B. P. Grenfell와 A. S. Hunt, The Oxyrhynchus Papyri, i-(London, 1898)-.

P. S. I.=Pubblicazioni della Società Italiana, papiri e Latini. P.

Sanz=Peter Sanz, Griechische literarische Papyri christlichen Inhalts, i(Vienna, 1946)

P1 (a) 마태. i.1-9, 12, 14-20, 23; (b) 111; (c)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no, E 2746; (d) P. Oxy. i, pp.4-7, no.2; (0e) Alexandrian text.

P2 (a) 요한. xii.12-15; (b) vii; (c) Florence Musco Archeologico, Inv. no.7134; (d) E. Pistelli in Studi religiosi, vi(1906), pp.129-30; (e) mixed text.

P3 (a) 누가. vii.36-45; x.38-42; (b) vi/vii; (c) Vienna,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Sammlung Papyrus Erzherzog Rainer, no. G 2323; (d) K. Vesely in Wiener Studien, vi(1882), pp.198-9, 211-14; vii(1885), pp.69-70; and J. N. Birdsall, ibid, lxxvi(1955), pp.153-4; (e) Alexandrian text.

- P4 (a) 누가. i.58-59, 62-ii, 6-7; iii.8-38; iv.2, 29-32, 34-35; v.3-8, 30-38; vi.1-16; (b) III; (c) 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no. Gr. 1120, suppl. 20; (d) M. J. Lagrange, *Critiquu textuelle*, pp.119-23; cf. Jenn Meirell, *Reves Biblique*, xviii(1938), pp.5-22; (e) Alexandrian text.
- P5 (a) 요한. i.23-31, 33-41; xvi.14-30 xx.11-17, 19-20, 22-25; (b) III; (c) Londdon, British Museum, P.782 and P.2484; (d) P. Oxy. ii, pp.1-8, no.208 and P. Oxy. xv, pp.8-12, no.1781; (e) Western text.
- P6 (a) 요한. x.1-2, 4-7, 9-10; xi.1-8, 42-52; (b) iv; (c) Strasbourg, Biblioth?que de la Unversit?, 351, 335, 370, 381, 383, 384, copt.; (d) F. R?sch, *Bruchst?cke des I. Clemensbriefes nach dem achmimischen Papyrus der Strassburger Universi?ts- und Landesbibliothck* (Strassburg, 1910), pp.119-22, 131-4, 143-8, (e) agrees with B and θ
- P7 (a) 누가. iv.1-2; (b) v; (c) 지금은 유실됨; was in Kiev, library of the Ukrainian Academy of Sciences; (d) C. R. Gregory, *Textkritik des Neuen Testamentes*, iii, p.1086, and K. Aland in *New Testament Studies*, iii(1957), pp.262-4.
- P8 (a) 사도행전. iv.31-37, v.2-9; vi.1-6, 8-15, (b) iv, (c) 지금은 유실됨; in Berlin, Staatliche Museen, p.8683; (d) C. R. Gregory, *Textkritik des Neuen Testamentes*, iii, pp.1086-90; (e) mixture oa Alexandrian and Western texts.
- P9 (a) 요한1서. iv.11-12, 14-17, (b) III; (c)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Semitic Museum, no.3736; (d) P. Oxy. iii, pp.2-3, no.402.
- P10 (a) 로마. i.1-7; (b) iv; (c)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Semitic Museum, no.2218; (d) P. Oxy. ii, pp.8-9, no.209; (e) Alexandrian text.
- P11 (a) 고린도전. i.17-23; ii.9-12, 14; iii.1-3, 5-6, iv.3-v.5, 7-8; vi.5-7, 11-18; vii.3-6, 10-14; (b) vii; (c) Leningrad, State Public Library; (d) Tischendorf in *Verhandlungen der 25. Versammlung der deutschen Philologen und Schulm?nner in Halle* (Leipzig, 1868), pp.44-45, and K. Aland in *New Testament Studies*, iii(1957), pp.268-78; (e) Alexandrian text.
- P12 (a) 히브리. i. q; (b) and of III; (c) New York, Pierpont Morgan Library, no. G.3; (d) Grenfell and Hunt in *The Amherst Papyri*, i. (London, 1900), pp.30-31.
- P13 (a) 히브리. ii.14-v.5; v.8-22, 29-xii.17; (b) iii/iv(perhaps first half of fourth century); (c) London, British Museum, P.1532 (verso), and Florence, Biblioteca Medicea Laurenziana; (d) P. Oxy, iv, pp.36-38, no.657; and P. S. I. xii(1951), pp.209-10, no.1292; (e) Alexandrian text.
- P14 (a) 고린도전. i.25-27; ii.6-8; iii.8-10, 20; (b) v(?); (c) Mount Sinai, St. Catharine's Monastery, no.14; (d) J. Rendel Harris, *Biblical Fragments from Mount Sinai*(London, 1890), pp.xiii, 54-56; (e) Alexandrian text.
- P15 (a) 고린도전. vii.18-viii.4; (b) iii; (c) Cairo, Museum of Antiquities, no.47423; (d) P. Oxy. vii, pp.4-8, no.1008; (e) Alexandrian text.

- P16 (a) 빌립보. iii.9-17; iv.2-8; (b) iii/iv; (c) Cairo, Museum of Antiquities, no.47424; (d) P. Oxy. vii, pp.8-11, no.1009; (e) Alexandrian text.
- P17 (a) 히브리. ix.12-19; (b) iv; (c) Cambridge, England, University Library, gr. theol. f. 13(P), Add. 5893; (d) P. Oxy. viii, pp.11-15, no.1078; (e) mixed text.
- P18 (a) 계시록. i.4-7; (b) iii/iv; (c) London, British Museum, P.2053(verso); (d) P. Oxy. viii, pp.13-14, no.1079; (e) ?와 일치, A, and C.
- P19 (a) 마태. x.32-xi.5; (b) iv/v; (c) Oxford, Bodleian Library, Ms. Gr. bild. d. 6(P); (d) P. Oxy. ix, pp.7-9, no.1170; (e) 혼합된 사본, chiefly Western.
- P20 (a) 야고보. ii.19-iii.2, 4-9; (b) iii; (c) Princeton, New Jersey, University Library, Classical Seminary AM 4117(15); (d) P. Oxy. ix, pp.5-11, no.1151; (e) Alexandrian text.
- P21 (a) 마태. xii.24-26, 31-35; (b) iv/v; (c) Allentown, Pennsylvania, Library of Muhlenberg College, Theol. pap.3; (d) P. Oxy. x, pp.12-1, 4 no.1227; (e) agrees with D와 ? 일치.
- P22 (a) 요한. xv.25-27; xvi.1-2, 21-22; (b) iii; (c) Glasgow, University Library, Ms.2-x. i; (d) P. Oxy. x, pp.14-16, no.1228; (e) mixed text agrees partly with ? and partly with D.
- P23 (a) 야고보. i.10-12, 15-18; (b) beginning of iii; (c) Urbana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Classical Archaeological and Art Museum, G. P. 1229; (d) P. Oxy. x, pp.16-18, no.1229; (e) Alexandrian.
- P24 (a) 계시록. v.5-8; vi.5-8; (b) iv; (c) Newton Center, Massachusetts, Library of Andover Newton Theological School; (d) P. Oxy. x, pp.18-19, no.1230; (e) ?와 일치.
- P25 (a) Matt. xviii.32-34; xix.1-3, 5-7, 9-10; (b) end of iv; (c) 지금은 유실; Berlin, Staatliche Museum, P.16388; (d) Otto Stegmüller in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xxxvii(1938), pp.223-9; (e) Western text.

사진07. 체스터 베티 파피루스

- P26 (a) 로마. i.1-16; (b) c.600; (c) Dallas, Tex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ne Museum; (d) P. Oxy. xi, pp.6-9, no.1354; (e) agrees with A와 ? 일치.
- P27 (a) 로마. viii.12-22, 24-27, 33-39; ix.1-3, 5-9; (b) iii; (c) Cambridge, England, University, Add. MS. 7211; (d) P. Oxy. xi, pp.9-12, no.1355; (e) chiefly Alexandrian text, but with Western readings.
- P28 (a) 요한. vi.8-12, 17-22; (b) iii; (c) Berkeley, California, Library of Pacific School of Religion, Pap.2; (d) P. Oxy. xiii, pp.8-10, no.1596; (e) Alexandrian text.
- P29 (a) 사도행전. xxvi.7-8, 20; (b) iii; (c) Oxford, Bodleian Library, MS. Gr. bibl. gl. t(P); (d) P. Oxy. xiii, pp.10-12, no.1597; (e) Western text(?)

P30 (a) 데살로니가전서. iv.13, 16-18; v.3, 8-10, 12-18, 26-28; 2 Thess. i.1-2; (b) iii; (c) Ghent, University Library, U. Lib. P.61; (d) P. Oxy. xiii, pp.12-14, no.1598; (e) mixed text.

P31 (a) 로마. xii.3-8; (b) vii; (c) Manchester, England, John Rylands Library, P. Ryl. 4; (d) A. S. Hunt, Catalogue of Greek Papyri in the John Rylands Library, i (Manchester, 1911), p.9; (e) ?와 일치.

P32 (a) 디도. 1, 15, ii.3-8; (b) c.200; (c) Manchester, England, John Rylands Library, P. ryl. 5; (d) A. S. Hunt, Catalogue of Greek Papyri in the John Rylands Library, i (Manchester, 1911), pp.10-11; (e) ?와 일치, 로마 C 일치.

P33 (a) 사도행전. xv.22-24, 27-32; (b) vi; (c) Vienna,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no.190; (d) G. Wessely, Studien zur Palaeographie und Papyrskunde, xii (1914), p.245; (e) chiefly Alexandrian text.

P34 (a) 고린도전. xvi.4-7, 10; 고린도후. v.18-21, x.13-14; xi.2, 4, 6-7; (b) vii; (c) Vienna,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no.191; (d) G. Wessely, Studien zur Palaeographie und Papyrus-kunde, xii (1914), p.246; (e) Alexandrian text.

P35 (a) 마태. xxv.12-15, 20-23; (b) iv(?); (c) Florence, Biblioteca Medicea Laurenziana; (d) P. S. I. i (1912), pp.1-2; (e) mixed text (Alexandrian and Western).

P36 (a) 요한. iii.14-18, 31-32; (b) iv; (c) Florence, Biblioteca Medicea Laurenziana; (d) P. S. I. i (1912), pp.5-6; (e) mixed text (Alexandrian and Western).

P37 (a) 마태. xxvi.19-52; (b) iii/iv; (c)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Invent. no.1570; (d) H. A. Sanders in Harvard Theological Review, xix (1926), pp.215-26, and in Michigan Papyri, pp.9-14; (e) Caesarean text

사진08. 나쉬 과피루스

P38 (a) 사도행전. xviii.27-xix.6, 12-16; (b) c.300; (c)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Invent. no.1571; (d) H. A. Sanders in Harvard Theological Review, xx (1927), pp.1-19, and in Michigan Papyri, pp.14-19; (e) Western text.

P39 (a) 요한. viii.14-22; (b) iii; (c) Chester, Pennsylvania, Crozer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no.8864; (d) P. Oxy. xv, pp.7-8, no.1780; (e) Alexandrian text.

P40 (a) 로마. i.240-27, 31-tt.3; iii.21-iv.3; vi.4-5, 161 ix.17, 27; (b) iii; (c) Heidelberg, University tsbibliothek, Inv. Pap. graec. 45; (d) F. Bilabel, Griechische papyri in (Heidelberg, 1924), pp.28-31 (=Veröffentlichungen aus den Badischen Papyrus sammlungen, iv, pp.124-7); (e) Alexandrian text.

P41 (a) 사도행전. xvii.28-xviii.2, 24-25, 27; xix.1-4, 6-8, 13-16, 18-19; xx.9-13, 15-16, 22-24, 26-28, 35-38; xxi.1-4; xxii.11-14, 16-17; (b) viii; (c) Vienna,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Pap. K. 7541-8; (d) C. Wessely, Studien Zur Palaeographie und Papyruskunde, xv(1914), pp.107-18; (e) Western text.

P42 (a) 누가. i.54-55; ii.29-32; (b) vi/vii; (c) Vienna,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KG 8706; (d) Walter Till and Peter Sarr, Eine griechisch-koptische Odenhandschrift(=Mununemta biblica et ecclesiastica, v; Rome, 1939), p.112; (e) A와 일치.

P43 (a) 계시록. ii.12-13, xv.8-xvi.2; (b) vi/vii; (c) London, British Museum, Pap.2241; (d) W. E. Crum and H. I. Bell, Wadi Sarga:Coptic and Greek Texts(Copenhagen, 1922), pp.43-45; (e) chiefly Alexandrian text.

P44 (a) 마태. xvii.1-3, 6-7; xviii.15-17, 19; xxv.8-10; John x.8-14; ix.3-4; xii.16-18[in this order]; (b) vi/vii; (c)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v. 14-1-527; (d) H. G. Evelyn White, The Monastery of Epiphanius at Thebes, ii(New York, 1926), pp.120-1, 301; (e) Alexandrian text.

P45 (a) 마태. xx.24-32; xxi.13-19; xxv.41-46; xxvi.1-39; 마가. iv.36-40; v.15-26, 38-vi.3, 16-25, 36-50; vii.3-15; 25-viii.1, 10-26, 34-ix.8, 17-31; xi.27-33; xii.1, 5-8, 13-19, 24-28; 누가. vi.31-41, 45-vii.7, ix.26-41, 45-x.1, 6-22, 26-xi.1, 6-25, 28-46, 50-xii.12, 18-36, 43-57; 사도행전. iv.27-36; v.10-23, 30-39; vi.7-vii.2, 10-21, 32-41, 52-viii.1, 14-25, 34-ix.6, 16-27, 35-x.2, 10-23, 31-41; xi.2-14, 24-xvi.4, 15-21, 32-40; xvii.9-17; (b) iii; (c) Dublin, Chester Beatty Museum and Vienna,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P. Gr. Vind. 31974; (d) F. G. Kenin, The Chester Beatty Biblical Papyri, fasc. ii, Gospels and Acts(London, 1933), and Hans Gerstinger in Aegyptus xiii(1933), pp.67-72; (e) partly Alexandrian, partly Western(pre-Caesarean) text.

P46 (a) 로마. V.17-vi.3, 5-14; viii.15-25, 27-35, 37-ix.32; x.1-xi.22, 24-33, 35-xiv.8, 9-xv.9(fragmentary), 11-33; xvi.1-25, 25-27; 히브리, 코린도전 후서, 에베소, 갈라디아, 빌레몬, 골로새(All with lacunae); 데살로니가전. i.1, 9-10; 1-3; v.5-9, 23-28; (b) c.200; (c) Dublin, Chester Beatty Museum, and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Invent. no.6238; (d) F. G. Kenyon, The Chester Beatty Biblical Papyri, fasc. ii(London, 1934), and fasc. iii Supplement(London, 1936), and H. A. Sanders, A Third-century Papyrus Codex of the Epistles of Paul(Ann Arbor, 1935); (e) Alexandrian text.

P47 (a) 계시록. ix.10-xvii.2(with small lacunae); (b) end of iii; (c) Dublin, Chester Beatty Museum; (d) F. G. Kenyon, The Chester Beatty Biblical Papyri, fasc. iii(London, 1934); (e) agrees with A, C, and ?.

P48 (a) 사도행전. xxiii.11-17, 23-29; (b) end of iii; (c) Florence, Museo Mediceo Laurenziana; (d) P. S. I. x(1932), pp.112-18; (e) Western text.

P49 (a) 에베소. iv.16-29, 31-v.13; (b) end of iii; (c)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Library, P.415; (d) W. H. P. Hatch and C. P. Wiles, Harvard Theological Review, li(1958), pp.33-35; (e) Alexandrian text.

P50 (a) 사도행전. viii.26-32; x.26-31; (b) vi/v; (c)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Library, P.1543; (d) C. H. Kraeling in Quantulacumque, Festschrift for Kirsopp Lake(London, 1937), pp.163-72; (e) agrees chiefly with B.

P51 (a) 갈라디야. i.2-10, 13, 16-20; (b) c.400; (c) London, British Museum; (d) P. Oxy. xviii, pp.1-3, no.2157; (e) Partly Alexandrian, partly eclectic text.

P52 (a) 요한. xviii.31-33, 38; (b) beginning of ii; (c) Manchester, John Rylands Library, P. Ryl. Gr. 457; (d) C. H. Roberts, An Unpublished Fragment of the Fourth Gospel in the Fohn Rylands Library (Manchester 1935); (e) Alexandrian text.

P53 (a) 마태. xxvi.20-40; Acts ix.33-38, 40-x.1; (b) iii; (c)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Invent. no. tt52; (d) H. A. Sanders in Quantulacumque, Festschrift for Kirsopp Lake(London, 1937), pp.151-61; (e) Egyptian mixed text.

P54 (a) 야고보. ii.16-18, 22-26; iii.2-4; (b) v/vi; (c)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Garrett Depos. 7742; (d) E. H. Kase, Jr., Papyri in the Princeton University Collections, ii(Princeton, 1936), pp.1-3; (e) agrees with B, C, and D.

P55 (a) 요한. i.31-33, 35-38, on upper portion of page, hermeneia below(as ρ59 and ρ60); (b) vi/vii; (c) Vienna,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P. Gr. Vind. 26214; (d) Sanz, pp.58-59; (e) Alexandrian text.

P56 (a) 사도행전. i.1, 4-5, 7, 10-11; (b) v/vi; (c) Vienna,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P. Gr. Vind. 19918; (d) Sanz, pp.65-66; (e) Alexandrian text.

P57 (a) 사도행전. iv.36-v.2, 8-10; (b) iv/v; (c) Vienna,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P. Gr. Vind. 26020; (d) Sanz, pp.61-62; (e) Alexandrian text.

P58 (a) 사도행전. vii.6-10, 13-18; (b) vi; (c) Vienna,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P. Gr. Vind. 17973, 36133, and 35831; (d) Sanz, pp.67-68; (e) Alexandrian, agreeing partly with I-text.

P59 (a) 요한. i.26, 28, 48, 51; 15-16; xi.40-52; xii.25, 29, 31, 35; xiii.24-26; xviii.1-2, 16-17, 22; xxi.7, 12-13, 15-17-20, 23, On upper portion of page, hermeneia below (as ρ55 and ρ60); (b) vii; (c)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Washington Square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Department of Classics, P. Golt, 3; (d) Lionel Gasson and E. L. Hettich, Excavations at Nessana, ii(Princeton, 1950), pp.79-93.

P60 (a) 요한. xvi.29-xix.26 with lacunae (Probably contained hermeneia, as ρ55 and ρ59); (b) vii; (c)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Washington Square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Department of Classics, P. Golt (d) Lionel Gasson and E. L. Hettich, Excavations at Nessana, ii(Princeton, 1950), pp.94-iii; (e) Alexandrian text.

P61 (a) 로마. lvi.23, 25-27; 고린도전. i.1-2, 4-6; v.1-3, 5-6, 9-13; 빌립보. iii.5-9, 12-16; 갈라디야. i.3-7, 9-13; ii.15, 데살로니가. i.2-3; 디도. iii.1-5, 8-11, 14-15; 빌레몬. 4-7; (b) c.700; (c)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Washington Square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Department of Classics, P. Golt, 5; (d) Lionel Gasson and E. L. Hettich, Excavations at Nessana, ii(Princeton, 1950), pp.112-22; (e) Probably Egyptian.

P62 (a) 마태. iii.25-30; (b) iv, (c) Oslo University Library; (d) Leiv Amundsen in Symbolae Osloenses, xxiv (1945), pp.121-40; (e) Alexandrian text.

P63 (a) 요한. ii.14-18; iv.9-10; (b) c.500; (c) Berlin, Staatliche Museum; (d) Otto Stegmüller in Biblica, xxxiv (1953), pp.13-22

P64 (a) 마태. xxvi.7, 10, 14-15, 22-23, 31-33; (b) c.200; (c) Oxford, Magdalen College Library; (d) Colin Roberts in Harvard Theological Review, xlv (1953) pp.233-7

P65 (a) 데살로니가전. i.3-10; ii.1, 6-13; (b) iii; (c) Florence, Biblioteca Medicea Laurenziana; (d) P. S. I. xiv (1957), pp.5-7; (e) Alexandrian text.

사진09. 신약사본 VII. 73

P66 (a) 요한. i.1-vi, 11, 35-xiv.26, and fragments of xiv.29-xxi.9; (b) c.200; (c) Cologny/Genève, Biblioth?que Bodmer; (d) V. Martin, Papyrus Bodmer II: Évangile de Jean, Chs. 1-14(Biblioteca Bodmeriana 1956); Suppl?ment, Évangile de Jean, chs 14-21(Biblioteca Bodmeriana, 1958); nouvelle ?d, V. Martin et J. W. B. Barris(1962); (e) mixed text.

P67 (a) 마태. iii.9, 15; v.20-22, 25-28, (b) c.200; (c) Barcelona, Fundaci?n San Lucas Evangelista, P. Barc. 1; (d) P. Roca-Puig, Un Papiro griego del evangelio de San Mateo (Barcelona, 1956); 2nd ed, with a Note by Colin [H.] Roberts(1962); (e) ?약 일치.

P68 (a) 고린도전. iv.12-17, 19-21; v.1-3; (b) vii(?); (c) Leningrad, State Public Library, Gr. 258; (d) K. Aland in New Testament Studies, iii (1957), pp 266-9; (e) agrees with the Textus Receptus against the Alexandrian text.

P69 (a) 누가. xxii.41, 45-48, 58-61; (b) iii; (c) 장소(?); (d) P. Oxy. xxiv, pp 1-4, no.2383; (e) mixed text.

P70 (a) 마태. xi.26-27; xii.4-5; (b) iii; (c) 장소 ?; (d) P. Oxy. xxiv, pp.4-5, no.2384.

P71 (a) 마태. xix.10-11, 17-18; (b) iv; (c) place(?); (d) P. Oxy. xxiv pp.5-6, no.2385; (e) ?약 일치.

P72 (a) 유다, 베드로전?후; (b) iii/iv; (c) Cologny/Genève, Biblioth?que Bodmer; (d) M. Testuz, Papyrus Bodmer VII-IX(Bibliotheca Bodmeriana, 1959); (e) 혼합된 사실

P73 (a) Matt. xxv.43; xxvi.2-3; (b) —, (c) Cologny/Genève Bibliothéque Bodmer; (d) 아직 출판하지 않음

P74 (a) 사도행전. i.2-5, 7-11, 13-15, 18-19, 22-25; ii.2-4, 6-iii.26; iv.2-6, 8-27, 29-xxvii.25, 27-xxviii.31; jas. i.1-5, 3-19, 21-23, 25, 27-ii.15, 18-22, 25-iii.1, 5-6, 10-12, 14, 17-iv.8, 11-14; v.1-3, 7-9, 12-14, 19-20; 베드로전. i.1-2, 7-8, 12-13, 19-20, 25; ii.7, 11-12, 18, 24; iii.4-5; 베드로후. ii.21; iii.4, 11, 16; 요한1. i.1, 6; ii.1-2, 7, 13-14, 14-18-19, 25-26; iii.1-2, 8, 14, 19-20; iv.1, 6-7, 12, 16-17; v.3-4, 10, 17; 요한2. vss.1, 6-7, 12-13; 요한3. vss.6, 12; 유다. vss.3, 7, 12, 19, 24-25; (b) viii; (c) Cologny/Genève, Bibliothéque Bodmer; (d) Rodolphe Kasser, Papyrus Bodmer XVII(Bibliotheca Bodmeriana, 1961); (e) A와 일치.

P75 (a) 누가. iii.18-23, 33-iv.2, 34-v.10, 27-vi.4, 10-vii.32, 35-43, 46-xviii.18; xxiv.53; 요한. i.1-xiii.10; xiv.8-xv.8(with lacunae); (b) beginning of iii; (c) Cologny/Genève, Bibliothéque Bodmer; (d) Victor Martin and Rodolphe Kasser, Papyrus Bodmer XIV-XV (Bibliothéque Bodmeriana, 1961); (e) B와 일치.

사진10. 웨스터 레딕 파피루스

사진11. 도마복음의 한 부분

P76 (a) 요한. iv.9, 12; (b) vi; (c) Vienna, Österreichische National bibliothek, P. Gr. Vind. 36102; (d) Herbert Hunger, Biblss : Österreichische Zeitschrift für Buch und Bibliothekswesen, viii(1959), pp.7-12. In addition to the 76 papyri described above, according to a preliminary announcement official numbers have been assigned to five more Greek papyri of the New Testament: p77 and p78 are included in vo.xxxiii of the Oxyrhynchus Papyri, p80 and p81 (tentative numbers) are among the documents found at Khirbet Mird. Still to be assigned an official number is a fourth-century fragment of 1 Pet. ii.20-iii.12, published as no. 2 in the series Papyrologica Castroloviana, edited by Jos? O'Callaghan.

① 역본들(Versions)

신약의 번역본들은 대개가 위의 구약 역본들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리아역(The Syriac Version), 라틴역(Latin Version) 등이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애굽역(Coptic Version)인데, 이것은 애굽의 여러 지방말로 번역된 것이다. 위의 번역들은 150년경에서부터 14세기까지의 것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특기할 것은 1976년에 현재의 구약성서에서 누락된 8페이지를 포함, 47 상자분의 성서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은 위에 말한 사해산 성 카다린 수도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발견한 분은 그리스의 아그리타스 교수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동년 성 카다린 수도원의 담을 개수하던 중에 담 밑의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이 보화들을 얻었는데 그 사본들은 주후 3세기의 것이며, 그것은 1947년 사해 사본이 발굴된 이래 최대, 최고의 값진 것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값지고 고귀한 사본과 역본들이 발견되어 성경의 형성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원용국, “성경형성의 역사”, 경향문화사, PP.254-268).

사진11. Roman Territories

7. 신약시대의 역사적 배경

예수님의 선구자 세세 요한과 만민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의 역사적 배경은 어떠했을까? 그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단번의 준비를 한 시대였다. 그 시대는 중세 말기와 신약시대 초기인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과학과 문화의 경제적 인종적인 면에서도 완벽하게 준비된 시대인데, 마치 새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품어 깨워서 그 새끼를 먹여 상장시켜 자립시키기까지 모든 여건이 완벽한 때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간숙한 시대였다. 그 시대를 보면 하스모니안 시대에서부터 허롯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이고, 헬라시대에서 로마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이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신약시대가 전개되는데 그것을 살펴보자!

1) 하스모니안의 독립 전쟁

주전 175년에 셀루키드(Seleucid) 왕좌에 오른 안티오코스 IV세(Antiochus)는 자기의 광대한 왕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 헬라적 종교를 확고히 믿는 신자였다. 그가 등위한 후 몇 년 안 되어서 주전 171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도비아드와 그의 동맹자들은 자기들의 진격으로 또 탁월한 헬라주의자인 메네라우스(Menelaus)를 대제사장에 성공적으로 승격시켰다. 그는 정치적이고 물질적 목적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임명권을 사용했다. 그는 유대주의에 대한 안티오코스 IV세의 독시를 지지했으며, 성전의 보물들을 왕의 재산으로 드렸다. 그의 방자한 행동은 부유한 유대인 헬라주의자들과 군중들 사이에 계급적 투쟁이 자라게 하였으며, 또 메네라우스의 추종자들 중의 몇은 처형당하였다. 그 때 안티오코스는 시민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하여 자기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고, 8만 명을 학살했다. 그는 성전을 모독했으며, 또한 성전을 약탈했다. 그리고 은 700만 세겔이나 되는 1,800 달란트에 달하는 보물을 가져갔다. 그 왕은 유대 종교의 헬라화를 자기 관리들에게 각시했다. 주전 167년에 그는 유대인 신앙의 관습을 금지했으며, 여기서 종교적 정책은 헬라주의자의 연대감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신에 그는 “하늘의 주”인 Baal Shamem 즉 동양적 우상인 Zeus인 헬라적 우상을 높였다. 다른 만신전에 유사한 신들을 언급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 근동에서는 수천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이 시대에

헬라와 로마의 신들로 소개되어서 숭배되었다. 이처럼 두로의 멜카트(Melkart)도 헤라크레스(Heracles)라 불리워졌으며, 바알 샤뎀(Baal Shamem)은 Jupiter Iteiopolitavus와 같이 레바논에서는 바알벡(Baalbek=그양고고학 참고)을 나타내고 있다. 안티오크스를 위하여 여호와를 제우스, 주피터, 바알과 같이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완전히 신성모독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분노와 큰 자극을 자아내게 하였다. 비록 메네라오스가 대제사장으로 재등용이 되었을지라도 성전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곳이고, 공적인 일 외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인데 도둑타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1) 유다 왕국의 회복

모세의 율법에의 찬선은 막강한 반란으로 인도했다. 헬레니즘에 대한 거룩한 전쟁은 하스모니안 제사장 맛타디아(Mattathias)와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주전 165년경에 선포되었고 또 그를 중심한 모든 군중들이 결합해서 투쟁했다. 다섯 아들들 중에 셋째인 유다(Judas) 마카비는 전략상의 지휘자였다. 그는 전쟁 6년 후에 살해되었다. 대제사장 직권을 국궐시킨 요나단과 시몬(주전 161-135)의 밑에서 유대인들의 영토가 독립을 얻게 되었고, 또한 사마리아의 애안 평야를 포함한 북쪽과 서쪽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시몬의 돌연한 사망으로 그 왕국은 군계 세워졌다. 시몬의 아들인 (주전 135-104) 힐카누스(Hyrchanus)의 통치시대에 안티오크스 VII세는 예루살렘에 군대를 파견했다. 그는 유다에서 조공을 받았고, 볼모로 요한(John)을 잡아갔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드방에서 자기 나라에 와서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는 일에 성공했고, 뜻밖에도 그 나라의 영토를 확대시켰다.

● 대제사장의 명단

아론으로부터 포로때까지의 대제사장들의 전체 명단은 역대기 상권 5장 29-41절에 기록되어 있다. 기원전 4세기까지의 대제사장들은 느헤미야 12장 10-11절과 유대인 역사가 요세피스의 저작인 「유대 고대사」(Antiq. 7, 8, 7 §347부터 VIII, 5, 1 §239까지; XX, 13, 1-5 §244-251에 전체 기술이 있다)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신약성서 시대에 대한 문화사적 연구, Göttingen 1962, 424 f.) 주전 200년부터 주후 70년까지의 대제사장 명단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시몬 양조

?시몬, 정의의 사람(주전 200년 후)

?오디아스 2세(주전 175년까지)

?야손(주전 175-172)

?메네라우스(주전 172-162)

?알키도스(주전 162-159)

* 주전 152-57년 : 바가미가 출신의 8명의 대제사장

?요나단(주전 152-142)

?시몬(주전 142-134)

② 요하네스 힐카누스 1세(주전 134-104)

③ 아리스토틀로스 1세(주전 104-103)

④ 알렉산더 안나디오스(주전 103-76)

⑤ 힐카누스 2세(주전 76-67, 63-40)

⑥ 아리스토틀로스 2세(주전 67-63)

⑦ 안티고노스(주전 40-37)

(2) 하스모니안과의 투쟁

사진14. 하스모니안 시대의 팔레스틴

일단 독립을 쟁취하였던 하스모니안 지도자들은 국민 생활의 세속화의 과정을 시작했다. 이것은 핫시디안들에게서 보여진다. 그들은 신앙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싸우게 되었다. 요나단이 주전 152년에 대제사장에 취임했을 때, 그는 솔로몬시대 이후에 사독의 가문이 고대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처럼 제사장의 계승에 대한 핫시디안 교의들을 거부함을 범죄로 단정했다. 이 범죄가 시몬 밑에 있는 하스모니안 계통에서 세습하게 되었을 때, 그 행동은 그들의 우월한 위치에서부터 유족들을 대신했다. 핫시디안들

은 이상적 왕국의 최후의 회복을 기대했으나 하스모니안의 역사적 계승이 다만 그들에게서 떠나게 했다. 정치적 독립이 공취된 후에, 하시디안은 하스모니안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며, 정치적 생활에 그들의 참여를 포기하게 했고, 또 종교적 관례를 대신 강요하게 되었으며, 고대의 방법에 완전히 집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스모니안 체제에 대한 가혹한 비판을 했으며, 항거를 기도했고, 또한 마카비의 선택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다. 하시디안의 한 분파인 에센(Essene) 집단은 유대 광야로 나아갔으며, 거기서 성경에 근거한 가장 오랜 전통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고, 한 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를 차지할 새로운 순수한 이스라엘의 성원이 되고 있었다. 이 사실은 그 당시의 연대기에 결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 그것은 오랜 동안 잊혀져 왔다. 그러니 우연한 기회에 베드윈 목동에 의하여 발굴된 발굴물에 의하여 현대 고고학상 최대의 발견을 하게 되었다. 쿨란(Qumran)과 그 인근 지역에서 사해사본(Dead Sea Scrolls)의 발견은 그 당시의 유대주의와 초기 기독교를 연구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것은 에센과 연합한 언약자들의 종교적 또는 사회적 집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나라가 망한 후에 하스모니안의 왕자들은 자기들의 병력과 재산들을 모아 도망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으며, 힐카니스는 안티파터(Antipater)의 장중에서 꼭두각시가 되어 남아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아리스도불레스 2세와 그의 아들들인 Alexander와 Antigonus Matathias II세의 노력은 왕위 계승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에 헤롯에 의하여 왕위가 계승되고, 주전 37년에 예루살렘은 점령되었다. 이것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말로이다.

① 유다의 아들, 맛타디의 무덤

근년에 한 암혈 무덤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Scopus 산에서 발굴되었다. 그 무덤은 기념 비문이 있었고 또 화려한 납골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비문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Abba가 박해를 받았고, 유다의 아들 Matathias의 뼈들을 가져다가 그의 동굴 무덤에 그의 뼈를 묻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무덤과 비문의 발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맛타디는 마지막 하스모니안 왕이 된 누군가로 추정되고 있으며, Antigonus는 헤롯에 의하여 폐위되었다.

② 하스모니안 시대의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적들

하스모니안 왕조는 결과적으로 100여년간(주전 153-63) 그 땅을 다스렸다. 헤롯은 하스모니안 왕 안티고누스(Antigonus)로부터 왕위를 탈취했으며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생존한 하스모니안 자손들을 대부분 살해했다. 그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큰 건축 사업을 착수했으며, 또 팔레스틴에 있는 다른 중심 지역에도 건축을 시작했다.

사진15. 맛타디의 무덤의 비문과 납골함

사진16. 하스모니안시대의 베데스다 못의 일부들

유감스러운 것은 하스모니안의 건물과 유적들이 매우 적게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서는 유대인들의 최후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수도로 봉착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과 모든 재력을 동원하여 수고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전 마지막 세기로 감정된 고고학적 발굴물들이 얼마 남아 있어서 당시를 증거 하는데, 그것들은 1967년 이후에 발굴된 것이다. 이 유물들은 하스모니

안 왕국시대에 있던 것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그것들은 헤롯 왕조 시대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념할 만한 유물들은 하스모니안이 예루살렘의 얼마나 넓은 지역을 차지했고, 또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왕궁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동쪽과 북쪽으로 얼마나 확장되었고, 인구는 얼마나 거주했으며 특별히 몇 도시(현재 유대인 지역)가 얼마나 차지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증거는 큰 성벽들과 기념 건물들 조각된 돌, 한편으론 안과 동굴 무덤들이다. 작은 발견물들로 중요한 것은 도기와 동전들이다. 위의 발견물들에 의하여 이 시대는 어느 정도 측정이 되었다.

① 성벽과 성채들

헤롯과 더 후대의 건축자들에 의하여 건설된 성벽 밑에서 고고학자들은 여러 지역들을 발굴했는데, 예루살렘의 방어를 나타내는 고대의 설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스모니안의 견고한 성벽의 기초와 큰 성벽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학자들은 그 성벽의 동, 서, 남, 북을 조사하였다. 서쪽에서 성채를 발굴했고, 또 1976년 이후에 고대 도성 각쪽 성벽의 완전한 길이를 확인했다. 그곳은 오늘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 요한 힐카누스와 알렉산더 안네우스에 의하여 건축된 두꺼운 성벽을 발굴했다. 이 낮은 지층에서 성벽과 그 인접한 탑들의 줄이 큰 헤롯의 성벽과 탑들 위에 세워져서 접속된 것을 발견해 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성벽에 사용된 돌들과 기층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1976년에 Magen Broshi의 극적인 발굴로 성전 언덕과 시온산 경사지가 발견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한 지역 중에 하나임이 밝혀졌다. 그것은 하스모니안 왕들의 중요한 사업들 중에 하나가 전쟁 시에 그 도시를 잘 방어하기 위하여 그 수도의 여러 지역을 요새화한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스모니안 성벽은 대부분 큰 암석위에 세워진 것이고, 거칠어진 네모진 돌로 조각되지 않았으며, 그 특성은 끝부분에 정을 사용했으며, 헤롯의 네모지게 다듬은 돌에 조각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그 성벽의 더 초기의 줄은 군사적 압력과 미구에 닥칠 공격의 공포 밑에서 성급히 건축된 것이다.

사진17. 하스모니안 시대의 사진18. 1978년에 발굴된 하스모니안

성벽에 세워진 헤롯의 성벽 동편 경사지와 계단식 성벽

두 번째 가장 훌륭한 요새는 오펔(Ophel) 정상에 세워진 것인데, 그 곳은 고대에 다윗의 도시의 자리이며, 더 후대에는 낮은 시가지가 있었다. 기혼 샘에서는 서쪽으로 220피트와 성전 산에서 동쪽으로 수백피트 되는 곳에 있다. 이 성벽은 두 개의 탑에 의하여 측면에서 수호되었고, 동쪽 편은 계단으로 된 석공물을 가진 경사진 비탈길에 의하여 방어되었으며, 전쟁 때에 성벽을 수호하고 공격하기 적을 방어하게 되어 있었다. 그 요새들은 주전 2세기에 하스모니안에 의하여 세워졌고, 또 주전 9-8세기에 유다 왕들 시대에 건축된 초기의 성벽과 가옥들도 남아 있었다. 더 후대에는 느헤미야에 의하여 개수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도 그 건축물의 자취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성경적 예루살렘으로 가장 오래 남아있는 구조물들 중의 하나이며, 그것은 공격과 파괴를 당한 것보다 더욱 수난을 당했었다. 하스모니안 성벽의 다른 부분은 성전산 꼭대기의 성벽 남동쪽 모퉁이 가까이에 놓여 있다. 하스모니안 시대로 건설된 이 부분은 거칠게 네모진 돌을 잘라 만들었고, 그 특징이 헤롯 형식을 가지고 조각된 큰 네모진 돌들과 접속된 곳에서 있다.

사진19. 오펔에 있는 하스모니안 성채

② 상부 도시와 Akra

하스모니안 유물들 중에 는 것은 N. Avigad 교수에 의하여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발굴되었고, 잘 밝혀졌다. 그것은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여 기록된 상부 도시로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거기에 하스모니안은 자기들의 왕궁을 건축했고, 귀족과 군대 지휘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집들을 건축한 수도의 핵심 부분이었다. 그곳은 성전산 공터와, 매일 진행되는 의식과 큰 거주지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이 지역의 거주지와 광역은 헬라화주의자들의 최후의 요새인 Akra가 되었다. 그 Akra의 정확한 위치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성전산을 발굴하여 조사한 B. Mazar는 남쪽 대문들을 바라보는 오펔 산마루의 꼭대기에 있는 남쪽에 서 있었다고 믿었다.

그 당시의 헬라적 양식을 가진 웅대한 하스모니안 건축물의 증거가 깨어진 기둥들과 기둥 꼭대기에 놓았던 고린도와 이오니아식 기둥머리들에 의하여 증거 되어졌다. 그것들은 파괴물 속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나, 어떤 것은 그 기초로 놓았던 것들도 있었다. 그 본래의 크기와 높이는 약 40피트였고, 직경은 6피트였으며, 크고 인상적인 건물의 구조물로 되었다. 그 밖에 발굴물들은 주전 3내지 2세기의 도기와 유물들로 밝혀졌다. 도기의 손잡이들 중에 어떤 것은 하스모니안 황가리의 특징을 나타냈는데 초기의 히브리 문자로 야훗(????)이라는 도장을 찍은 것이 밝혀졌다.

그 당시의 가옥들 중에 한 현관 밑에서 많은 동전들이 발견되었는데, 어떤 것은 Alexander Jannaeus 또는 Antigonus에게 속한 것이었으며, 또 다른 것들은 헤롯에게 속한 것이었다. 더 낮은 지대의 발굴물들 중에서 하스모니안 동전들만이 나타났다. 이 건물에서 발견된 다른 중요한 발견물은 염소의 뿔과 석류 열매의 돌조각이 있었고, 하스모니안 동전들과 왕궁의 가옥에서도 한 동기와 유사한 것이 발굴되었다.

③ 체육관, Xystos와 율슨 아취

헬레니즘과 하스모니안 시대의 다른 대륙적인 유적은 성전산의 서쪽 성벽들을 바라보는 티로페온 골짜기에서 발견된 작은 방이었으며, 지붕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의 유물들을 가지고 있으며, 원 도통이에는 날개 있는 사자를 조각한 부도가 있었다. 지하의 방은 예루살렘의 고대 도성의 한 시층의 밑에 놓여 있다. B. Mazar에 따르면, 그것은 Xystos와 관계되고 있으며 헬레니즘의 체육관의 유적은 운동 경기로 이름이 났었으며, 또 다른 면에는 하스모니안이 그것들을 금각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진행되었다(The Mountain of the Lord, p.215). 그곳은 남쪽에 있는 먼 샘에서 성전산까지 돌을 끌어들이 수로를 떠받치고 있는 하부의 파괴된 아취를 의지하고 있다. 그 아취는 Wilson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Wilson 아취라고 한다.

④ 계단길과 못들

더욱이 그 당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긴 계단 길의 정상에서 발견된 하스모니안시대로 감정된 큰 저장소였다. 그것은 Callicantu 교회의 기초에서 시작되고 있다. 또 그것은 히스기야 왕에 의하여 굴착된 지하의 수로의 출구에 놓인 실로암 못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서쪽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진20. 시온산에서 내려가는 고대 계단 길

⑤ 베데스다의 하스모니안 못

말라버린 이 이중 돛은 성전산 공터의 북쪽 끝의 바로 너머에서 발굴되었다. 그것은 길이가 약 40 피트였고, 넓이가 200피트였으며, 또 깊이가 33피트에서 50피트까지였다. 즉 연못의 지역은 하스모니안 시대에 있던 암석을 깎아 만들었는데, 하스모니안 양식으로 암석을 깎아 만든 다섯 방들이 여기서 발견되었으며, 그것은 세례실로 인도하는 계단들에 의하여 찾아냈다. 알렉산더 칸네우스의 명예를 높이는 한 기념물이 베데스다 못 가까이 세워져 있었다. 성전 지역 공터 밖에 놓여 있는 이 못들은 다른 지하의 못들, 통로와 남쪽 있는 회당들, 모슬렘 회당이 서 있는 윗 공터 밑에 있는 큰 못과 인접해 있었다.

⑥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가정 묘지들

마카비 1과 2서와 요세퍼스에 의하여 입증한 것처럼 그 도시의 영광된 증거는 지하 가정묘지로 알 수 있다. 성전산의 동쪽 기드론 골짜기의 암반을 파내고, 그것을 기념 기념묘지로 만들었다. 그것은 제사장인 Beni Hezir 무덤이었다. 그것은 기둥과 무덤방을 그 당시의 헬라의 본래의 예술을 빌어서 조각하여 놓았다. 그 정면은 도리식 기둥들과 윗 인방에는 히브리 비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제사장 집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21. 기드론 골짜기의 베나헤질의 무덤 전면

⑦ 하스모니안 시대의 그 도시의 범위

이 광대한 발견물들은 하스모니안 시대에 예루살렘의 급속한 성장과 그 경제적 번영을 증언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했던 헬라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그 인구가 12만 명이 넘었고 또 그 도시의 세 성벽들에 의하여 방비되었다고 했다. 예루살렘 거리들은 포장되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시장은 사람들과 상인들로 붐볐고, 느헤미야 시대에 백성들의 외침이 멀리 들린 것처럼(느 12:27-43)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인구의 밀도는 너무 높았는데 B. Mazar의 견해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대 테로왕 시대에도 아직 큰 도시였다고 한다.

2) 바리새인들

하스모니안의 지도자들 중에 대다수가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겉과와 경향에 행동으로 반대하여 일어난 집단을 이룬 자들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자기들의 신학적 관점에 근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때에 그들은 많은 무리를 규합하여 강력한 바리새파를 조직하였다. 또 그들은 병론상 유대주의의 대표적인 강력한 힘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 즉 분리주의자”라고 했다.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법에 근거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의 법을 준수하며, 선민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백성은 선도한다는 것이다.

3) 사두개인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연구하여 지키며 수호하며 가르치는 하스모니안의 지지자들은 바로 이들인데 국민의 새로운 독립을 지지하여 결합된 자들이다. 그들은 팔레스틴과 트랜스 율단에 있는 이웃 나라들과 연맹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립한 자들이었으며, 그들은 현실파요 실용주의 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의 존재, 영과 악신의 존재, 부활, 심판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과과의 사건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백성에게 귀족적이었고, 제사장 계급이고 척척인 지도자들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사두개」라는 단어는 솔로몬 왕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왕상 2:35)이란 이름에서 온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두개인의 실재적인 역사를 보면 주전 104년에 요한 힐카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사회가 속화되었고 권력싸움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 때로 요한 힐카누스의 맏아들 아리스토불리스(Aristobulus)는 대제사장 겸 왕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동생 셋을 감옥에 가두고, 다른 하나는 죽였다. 그러나 그 후 1년이 되지 못하여 죽고(주전 104-103) 그의 아내의 친척되는 알렉산더 안네우스(Alexander Jannaeus, 주전 102-76)가 대를 이었다. 그는 재임 중에 나라를 잘 다스렸으나 그의 과격한 성격 때문에 국내에서 반발을 다소 샀다. 안네우스의 사후에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Salome Alexandra 76-69 주전)가 여왕으로 9년간 유다를 통치하였다(주전 76-67). 그녀가 사망한 후에 그녀의 두 아들 힐카누스 2세(Hyrcaeus II)와 아리스토불리스 2세(Aristobulus II) 사이에 제사장 계승문제와 왕위 계승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자, 유다 내에서도 사두개인들은 힐카누스를 도왔다.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찰라에 수리아에 와 있던 로마의 장군 폼페이(Pompey)의 원정을 청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로마에 점령되는 비극으로 마무리 지었다(주전 63년).

사진22. 하스모니안의 시대 동전 요나단인

그러면 다음에서 쿰란과 사해 사본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4) 엡센파(Essenes)의 쿰란의 거주지

사해사본은 현대에 고고학에 의하여 발굴된 발굴물들 중 가장 극적인 것들 중에 하나이다. 첫 번 발굴 사본들은 7개로서 북서쪽 사해변 가까이에 있는 Wadi Qumran 언덕 위에서 1947년에 발견되었는데 베드윈(Beduin) 목동이 자기의 잃은 양을 찾다가 절벽에서 동굴을 발굴하고 그 동굴에서 반 길도 매몰된 항아리와 그 안에 있는 사본 조각들을 얻게 되었다. 여러 사본들이 히브리대학교를 위해서 1948년 유다 독립 전쟁을 하는 동안에 지금 유명한 고고학자인 Y. Yadin의 아버지 E. L. Sukenik에 의하여 획득되었다. 나머지는 미국에서 매입되었고 또 이스라엘 정부에 의하여 취득되었다. 그것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의 부속 박물관인 Shrine of the Book에 진열되어 있다. 첫 번 사본들의 발견 후에 여러 학자들과 베드윈의 많은 무리들이 다른 사본들을 찾아 나섰으며 그 결과 많은 사본이 매장되어 있는 여러 동굴들을 이전 위치의 북쪽에서 발굴하게 되었고, Khirbet Qumran의 거주지 근방의 제 4 동굴에서는 가장 큰 유일한 사본 수집철이 발굴되었다.

사진23. 사해 쿨란 제4동굴

또 그 사본들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온 분파들에 의하여 세워진 고대 유적지도 발굴되었다. 그 거주지는 1951-1955년에 드 보(R. de Vaux) 교수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그곳은 골짜기와 동굴들에서 동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조그마한 흙더미에 놓여 있었다. 사방 250피트 되는 성벽과 건물들은 주전 2세기 이후에 쿨란 단체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주전 2세기의 그 곳은 고대 유다인의 요새로 일찍이 있던 유물들에 통합되어 왔으며 주전 7세기인 요시아의 시대의 것들이다. 또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나라가 파괴된 후에는 버려져 있었다. 그곳은 여호수아서 5장 62절에는 '염성'(The City of Salt)이라고 한 고대 도성의 한 부분으로 보인다.

사진24. 옛센의 거처인 쿨란의 계획

그 쿨란 울타리는 북쪽으로부터 들어가게 되었고, 큰 3층탑에 의하여 방어 되었고, 좁은 광장이 그 대문에서 울타리의 여러 곳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다른 한 중요한 방들이 그 탑 남쪽에 놓여 있었다. 한 큰 방은 사본들을 복사한 곳으로 여겨지는 필사실(Scriptorium)로 밝혀졌다. 그곳에서 책상, 먹물 통과 손을 씻는 물통이 발견되었다. 동쪽에는 작은 다른 마당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부엌, 세탁소, 한 큰 저수지가 있었다. 골짜기에는 댐이 건설되어 있었고, 그 댐에서 물을 이곳으로 이끌어 들이는 수로와 수도관이 건설되어 있었다. 이 복합시설의 남측은 67×35피트로 측정된 집회소가 있었고, 식료품 저장실에는 아직도 접시들의 진열장들과 많은 물통들이 있었고, 두 가마를 가지고 있는 도기 작업장이 있었다. 그 도기 가운데 불로 구운 큰 항아리들 중 하나가 사본들을 보관하는데 사용된 것이고, 다른 작은 그릇들은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다. 그 주거지의 서쪽 편에도 작업장, 창고, 사일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돌로 만든 벽과 분리된 곳에는 1,100여 명을 매장한 듯한 공동묘지가 그 주거지의 동쪽에 놓여 있었다.

사진25. 쿨란 수도원에서 나온 사본 항아리

쿨란은 아마 옛센(Essenes)의 한 분파로 사해파가 되어 요한 힐카누스(John Hyrcanus=주전 135-104) 시대에 다시 거주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전 31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고 드는 불타버렸으나, 주전 4년에 재건되었었고, 마침내 유대인의 반란으로 주후 68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로마 군인들은 20년 간 거기에 주둔했었다. 그 분파는 식량을 자급자족했고, 남쪽으로 1마일 반 떨어진 Ein Feshka에서 가죽종이와 양피지를 얻기 위하여 가죽들을 제조했었다.

그 연합자들은 12 "왕자들"(Princes)의 위원회에 의하여 통치되었거나 또는 지도자들과 세 제사장들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업은 자기들의 군중을 양으로 인정하는 mebaqer 또는 paqid에 의하여 행사 되었고, 또한 초대교회의 감독들처럼 많은 동일한 임무가 주어져 있었다. 옛센들은 재물을 공동으로 관리하였고 사유재산이 거부되었다. 그들 외에 다른 집단은 없었던 것 같고 그들은 다른 이들과 결별되어 있었던 것 같다.

사진26. 주전 제2세기 사해변에서 나온 고대 이사야 두루마리

(1) 두루마리들

두루마리들의 대부분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탄소와 철분이 혼합된 잉크를 가지고 히브리어 네모진 글자로 비스듬하게 기록했다. 또한 석은 파피루스도 발굴되었다. 한 두루마리는 완전히 용해되었는데 구리판이었다. 즉 문자를 금속판에 기록한 것이다. 그 문서들은 어떤 것은 하스모니안 전기에 기록되거나, 하스모니안 시대의 것도 있었으며, 또 심지어는 주후 68년인 헤롯왕조시대까지로 감정되는 것도 있었다. 오경과 율가서를 포함한 문서들 중에 몇 개는 포로전 문서와 베니게 문자를 모방한 고대 히브리어체로 기록된 것도 있었다. 이 문자로 된 가장 큰 유일한 문서는 레위기서의 부분적 필사본이다. 네모진 글자로 된 필사본들 중에 학자들은 학자들의 이름인 야웨(??? ?)라는 단어가 오랜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 모든 필사본과 단편의 4분의 1 이상이 성경 사본들이었고, 그것은 주전 3세기 중엽에서 주후 1세기 중엽 사이의 것으로 감정되었다. 그것보다 100년 이상이나 이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성경 사본 전래에 매우 일찍부터 한 전기를 마련하여 준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사진27. 알레포사본(Aleppo Codex, 대하 2:26-3:4)

주후 9세기 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에 첨부해서 말할 것은 에스더서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책이 콤란에서 나타난 것이며, 많은 외경과 위경들도 또한 나타났는데 벤시라의 지혜, 도빗, 쥬빌리, 예녹, 12 족장들의 언약의 부분 등이다. 여기서 변역한 것으로 알려진 외경 복사판들은 원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하박국 페셀(Peshier)과 같은 이런 주석서들도 있었으며, 또한 창세기 가정으로서 아람어로 기록된 주석도 있었다.

사진28. 하박국 주석의 일부분

② 사해 집단의 문서들

우리는 다음에서 사해 콤란에 거주한 단체의 기원, 조직과 생활양식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 이것은 귀한 일이다.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자료는 그들의 훈련교본, 찬송과 다른 기록물들의 수집설인데, 그것들은 고고학에 의하여 밝혀진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ㄱ) 단체의 두루마리들

그들의 대 작품은 세 개인데, 그 중에 귀한 것이 “훈련교본”(Manual or Discipline)이다. 그 가장 중요한 훈련교본은 하나님과 그 단체 사이에 맺은 언약이 갱신된 연중행사에 대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약 단체의 이념론, 즉 그들의 법과 규칙들, 그 단체의 종교 원리와 율법과 생활 규칙 등이 있다. 거기에는 찬

양의 찬송이 들어 있다. 교본에 편집된 다른 작품 중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의”에 대한 규율이 있는데, 말세에는 그 집단의 교훈들과 쿰란 백성에게 종말론적 특권을 가져다 줄 것이다. 편집물에 포함된 것 중에는 마지막 날에 어딘 신비적 의식이 포함된 “Hodayot”라는 감사 찬송의 수집철이 있다.

(L) 다메섹 사독의 문서

백성에게 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문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연결하여 주며, 또한 쿰란 집단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훈련교본과 도시와 지방사회의 행정부를 위한 공식화된 규칙에 대한 많은 원리적 제약들을 가정하고 있다. 그 도시와 지방의 양 집단은 중앙 집단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문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동안 전통을 매우 충실스럽게 남겨 놓은 경건한 유대인들에 의하여 기록된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세 계급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과 대제사장의 전통적인 계통인 사독의 아들들이다. 그 “제사장들”은 유대 땅에서 회개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고, “레위인들은 그들의 회개들이었고, “사독의 아들들”은 마지막 날에 특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계획된 이스라엘의 선택자였다. 그들은 위에서 오는 예언과 직접 관계는 끝났으나, 선택자인 그들은 계승하는 계시를 가지고 축복을 받고 있는 이들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남은 백성임을 확신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매우 큰 자신감과 힘있는 낙천주의를 주는 것이었다. 그 문서는 비록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미쉬나(Mishnah)의 판결(Halakhah)에 기준을 같이 두게 한 규정을 가지는 것이 목표이다. 옛센 교본과 유사한 책은 카이로 회당의 게니자(geniza)함과 벨레가 먹어 백성됨)에 보존된 고대 사본들 사이에서 1896년에 발견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메섹 문서”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또 거기에는 같은 보통 규정들을 가진 집단과 교류하는 다메섹에 있는 한 사회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저명한 학자들은 다메섹에 대한 언급은 쿰란 사회를 암시하고 있다고 한다.

(L) 주석들

일단 성경책들이 정경이 되었다. 그것은 더 후대의 사회집단들의 사용을 위하여 권위있는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여졌다. 또 이 정경들은 각각 성경 계시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적이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필요한 진리에 도달하게 되었다. 쿰란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들이 성경의 예언서와 시편의 구절에 그 당시에 맞게 적용한 몇 주석들(???? 메사림)이 발견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쿰란 단원들의 제안과 초대 유대 기독교들 사이에는 유사점들이 있다는 것이다(참고 XV C-XV III). 두 집단들은 사기들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았고, 또 더 오래된 자료들에 따라서 해석한 것으로 믿겨진다. 또 분명히 차이도 있다. 각 두루마리들은 성경구절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주석에 의하면 각래와 같다. 성경에서 다음 구절을 인용했으며, 또 다른 해석을 첨가했다. 원본의 고대 역사는 그 당시의 환경을 예로 들어서 연대를 나타냈고, 또 이런 방법으로 그 배경과 그 집단의 경험과 그 집단의 본래의 지도자들이 어떤 정의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박국주석(The Commentary on Habakkuk)은 그 작품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이 예언서의 말씀을 충성된 “남은 자”와 불신 세계 사이에 그 당시의 투쟁과 비교하여 해석하는 비유적 랍비적 방법을 응용하고 있다(Art 7. Minor Prophets, Habakkuk). “악한 제사장”, 그의 거만과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잘못된 응용은 너무 낙연한 해석이었다. 실제로 유다의 형제 요나단에게서 알렉산더 얀네우스(Alexander Jannaeus)까지 하스모니안 대제사장들에만 적용하고 있다.

반대로 나훔, 호세이와 미가서 주석들은 다면적이고, 또 불명료하지만, 그들의 해석 방법이 위의 것과 유사하다.

(ㄹ) 의의 교사

그 주석에 지배적이고 불가해한 모습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통일된 신성한 능력을 준 것처럼 하박국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또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의 메시지의 참된 의미를 나타낸다. “의(義)의 선생”은 대제사장과 그의 예루살렘 설립자에 직접 압박받았고, 또 이전에 있는 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은 것처럼 의의 선생을 따르는 언약자들도 역시 고난을 받을 것을 밝히면서, 그 선생을 메시아의 모습과 동등하게 칭의 화하지 않으며, 그와 관계된 십자가의 못박힘이든지 또는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과 유사하나, 그러나 그들은 감동적인 구도자들에 의하여 과장되고 있다. 그 편지(문서)들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 사회와 그들의 교훈에 일반적 배경을 둔 술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옛센은 이 공동 유산을 차지하나 예수님과 의의 선생님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또 그 점에서부터 분리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ㄴ) 감사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그들의 결합과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의와 불의 사이에 큰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인의 운명에서 구원되려하는 언약자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찬송들을 수집한 것이다. 그 종교적 서정시들은 구약의 시편을 닮았으며, 또 가끔 단어들과 구절이 혼합되어 있고, 어떤 때는 모든 절들이 초기의 집집에서 나온 것 같다. 쿨란 시편들은 비록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쿨란 집단 사이에 직접적 유대가 있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을지라도, 성경 시편과 신약의 시적 요소 사이에는 유대가 있다. 그 선생은 그 찬송의 저자로 박복하고 있으며, 또 어떤 학사들에 의하면 그것들이 자서전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정경적인 시편과 유사한 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나”라는 대명사의 사용은 그 집단 또는 단순한 집단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사진29. 개봉된 “감사”의 두루마리 일부

(ㄷ)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와의 전쟁

쿨란 집단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사람과 천사들이 양편에 서 있어, 선과 악의 세력 사이에 서서 싸우기 위하여 구분되는 곳으로 여겨진다. 이 저작은 아술(Ashur)과 애굽을 잇딤(Kittim)이라 부르는 어둠의 자녀들과 충실한 이스라엘의 백성인 빛의 아들들인 세상을 다스리는 국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미래의 전

쟁에 대한 예언이 포함된다. 다니엘서에서처럼 본래의 무대는 주전 2세기 프톨레미(Ptolemies)와 셀루키드(Seleucids) 시대에 유대인들의 전반한 상항을 반영하고 있다. 그 저서의 현재 형은 로마시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군사적 장비와 전술에 대한 그 기록은 근동에 있던 그 선임자들 중에 어떤 사람보다는 차라리 로마 군인들의 교본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할 때까지 빛의 아들들의 흥망성쇠를 보여 주며, 성전 성원에 대한 규칙과, 전쟁의 전략과 방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특별한 내용으로는 나팔로 군중 소집, 군대에게 보내는 신호와 큰 전투에 사용되는 부대들과 전술에 대한 것이 있다. 이 광범한 내용 중에는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또는 전쟁 후에 드리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훼손되어 없다.

(사) 구리 두루마리

원래 함께 융합된 두 두루마리들은 동굴 III(Cave 3)에서 발굴되었다. 몇 발굴물들 중에 하나가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두루마리 탐색으로 발굴되어졌다. 그것들은 그 가까이에 많은 보화를 숨겨 놓은 장소에 대한 목차가 포함되어 있었다. 학자들은 그 보화들이 매우 인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그 항목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양식에 속하며 또 과거에 큰 보화를 숨겨둔 장소들과 함께 정성들여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이방인의 전통이기도 했다. 실제로 과거의 영웅적 업적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화 자체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은과 금의 증량과 값진 것들은 유산 되었고, 또 그 위치는 사실 찾을 수가 없다. 그 구리 두루마리의 연대는 주후 1세기 중엽의 것으로 그것은 과학자들에 의하여 복원되었다.

아마 지금까지 발굴된 옛센파의 문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한 성전 두루마리(Temple Scroll)이다. 그것은 Y. Yadin에 의하여 출판할 준비를 마치고 출판되었다. 그것은 그 집단의 관점에서 본 예배와 예배의식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행하는 예배이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나타난 그 성전 자리에 세워질 새 성전이다. 이런 면에서 그것은 이스켄서 마지막 장에 나타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 주는 것 같다. 그러나 Y. Yadin에 따르면 그 모습은 양자가 까다롭고 또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완전한 성구함이다. 그것은 기본적 모형에서 떠나 중요한 면이 있는 것이 차이가 된다.

사진30. 오경을 기록한 양피지가 있던

가죽 성구함의 외부 모습

(a) 성경과 외성

구약의 모든 책이 들어있는 완전한 두루마리와 단편들이 발굴되었는데, 단 에스더서만 있다. 제1 동굴(Cave I)에서는 완전한 이사야서 사본이 나왔으며,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사야서의 다른 복사판이 발굴되었다. 제7 동굴에서는 사무엘서 복사판이 발굴되었으나 매우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 흠이다. 그 사본은 기본적 사본인 히브리 사본과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헬라의 번역에 가깝다. 그것은 쿰란에서 나온

성경 사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해독법의 원리에 따르면 그것은 가능한 한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이르고 중요한 사본 형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x) 옛센 운동의 다른 분파

1) 다메섹 지역

쿠파에 있던 옛센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집단들이 있었다. 이들에 대하여 처음 기록한 이들은 요세 퍼스(Josephus)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철학자 필로(Philo)였다. 그러나 그들은 쿠파의 존재, 문서와 생활 방식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쿠파 옛센 외에 다른 중요한 집단은 주전 31-4년에 다메섹 지역에 거주하던 이들이다. 그들은 도시나 또는 야영을 했다. 다메섹 남쪽 지역에 헬라와 로마시대와 주후 4세기까지 유대인들이 거주해 왔다.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분파들이 거주했음이 드러났다.

다메섹 집단의 가정생활, 그들의 안식일과 경건 제식에 대한 규범들은 바리새적 집단 또는 하브를(???????, 추종권)와 종교적 유대를 나타내는 특성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 집단과 쿠파집단 사이에 생활 조직을 위한 규범들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집단의 역사적 발전과 그들의 지리적 위치로 보아 일치하고 있다.

이 시대에 쿠파 사회는 종말론적 경향이 강했고, 매일 율법의 연구를 크게 강조했으며, 제사장적 특별한 “지파로 자칭했었다”. 제시된 사회는 “아론의 메시아”(Messiah of Aaron)와 “이스라엘의 메시아”(Messiah of Israel)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름부음 받은 자가 무리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는데 그는 말세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2) 훌륭한 격리자의 다른 이단 집단

우리는 옛센 운동의 시리아와 팔레스틴 분파들 외에 생활 방법이 옛센의 생활과 유사한 Therapeutae에 대한 필로와 가이사라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가까운 마레오티스(Mareotis)호수의 지역에서 산 유대인 격리자들이다. 그들은 쿠파 백성들의 새 언약의 설치와 유사했으며, 여러 해 동안 같은 형태의 종교적 예식을 가지고 있었다. 에비온 운동(Ebionite Movement)은 옛센 주의의 다른 지류로 발전한 것이다. 주전 2세기 초기로부터 옛센 운동과 유대주의의 이단 형태들이 유대인 세계에 퍼졌는데, 핫시디안 운동에게 자극을 준 “훌륭한 격리자”의 세력을 만들어 냈다. 그들과 협조하고 또 분리된 집단들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박해 밑에서 발전하면서 각각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헬라인들과 후대에는 하스모니안 왕들에 의하여). 이념적인 위기는 하스모니안 왕에 의하여 각개시므로 그들은 하스모니안과 헤롯 왕조의 멸망을 가져오는 강력한 투쟁을 지속했다. 그들은 주후 66-70년과 132-135년에 유대 백성의 큰 독립운동을 일으켰었고 또 그들의 적대자들처럼 같은 운명을 맛보게 되었다. 남은 자들은 다만 살아남아서 유대주의자로 돌아갔고, 한 부류는 기독교인 집단이 된 것 같다. 주후 70년에 예루

살렘의 함락과 주후 73년에 맞사다의 멸망 후에 짧은 유대 독립 국가가 세워져서 주후 135년에 망한 후에는 바리새파의 랍비 계승자가 종교적·사학적 분야에 특권을 가졌으며, 오늘날까지 유대주의의 집단을 장악하여 오고 있다.

5) 헤롯의 시대

(1) 방종과 잔인성

줄리우스 가이사(Julius Caesar)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안티파터(Antipater)가 권좌에 오름으로 “대제사장과 지배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하스모니안 힐카누스 II세(Hasmonean Hyrcanus II)의 밑에서 종교적 사업과 행정관(Epitrophos=Procurator)이란 칭호를 받은 이두메아인 안티파터(Antipater the Idumaean)에게 주어진 권세로 인하여 세상 정부 사이에는 문명이 수반되게 되었다. 더욱이 안티파터의 아들인 마타디아스 안티고누스(Matathias Antigonus)의 폐위 후에 헤롯(Herod)은 마가 안토니(Mark Anthony)의 소환으로 주전 34년에 왕으로 등위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인 왕”(Jewish King)과 구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왕”(King of the Jews)으로 호칭했다. 헤롯의 집권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오랫동안 번영하였으므로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그러나 모든 분야에 잔인하고, 간사하고, 용감한 그의 성격은 욕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제거하여 버렸고 또 그에 대하여 기록한 저자들은 “공포와 진노의 사람”이라고 했고, 그는 자기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는 냉혈적인 인간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 역사에 가장 큰 건축사업을 완성했다. 그는 행정적, 외교적,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회와 유대인 교민들에게 헬라화하는 일을 좋아했다. 동시에 그는 유대인의 행사를 권장하고 또 자기의 가장 유명한 사업인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경건한 큰 사업과 예식을 장려했다. 그의 목적은 틀림없이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나 유대인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왕위를 반대하는 랍비들과 서기관들을 설득하여 사로잡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선임자들 같이 큰 지도자와 복합적인 인물이었으며, 유대인의 신앙에 어긋나는 그는 단순히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무섭게 피와 죄로 물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로마제국에 충성하는 신화가 되고 충심을 보여 자기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려 했고, 지중해 동쪽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가까운 문화와 상업적 유대를 유지했다. 그의 충성에 대한 차이는 백성들에게 다른 반응을 가져 왔는데, 대다수의 건곤주의자들과 안티파터는 히브리어 문서와 탈무드에 따라서 확실하게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물론 부유층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세계주의자 계급들은 혼란에 빠져서 양편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 그는 헬라주의적 교민 안에 있는 귀족적 유대인 가정들과의 유대를 강화했고, 또 Boethus의 집과 같은 이런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선출하여 임명했다. 헤롯이 죽은 주전 4년에서 주후 70년까지 그 시대는 두 큰 제사장 가문이 Boethus와 Hanan의 가문들이 경쟁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것은 로마 특권과 제후한 요셉 가야바는 Hanan가의 제1호로 관 계된 것을 나타낸다(그의 양자, 요 18:13-14). 헤롯의 가정생활은 음행과 질투, 음모와 의심의 귀범범으로 자기의 아들들을 살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자기의 총애하는 아내를 처형했다. 그는 자기의 말년에 소외된, 발광하는 폭군이 되어 이 산 성채에서 다른 산 성채로 쫓겨나고 원수들의 조롱과 모해를 피

하여 방황하는 자가 되었었다. 그는 아름다운 겨울 궁전을 세웠는데, 맛사다(Masada)의 절벽 위에 세워지며 여리고와 해로디움에도 하계 궁전 등은 세워졌다. 이런 궁전과 요새들은 Y. Yadin 등 여러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사진31. 헤롯시대의 팔레스틴

(2) 헤롯의 유적들과 도성들

헤롯은 자기의 통치 두 번째 십년되는 해에 자기의 영국을 북쪽 팔레스틴까지 확장했으며, 또 북쪽 트랜스요르단의 넓은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그의 나라의 변경을 굳게 지키고, 또 자기의 수입이 증가되므로 그는 큰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주전 20년 경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그것은 성전산의 서쪽, 남쪽과 동쪽의 운곽에 있는 성전산의 차부 지층에서 아직도 볼 수 있는 새로 건축된 성벽과 건물 유적지들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광대하게 건축되어 있었다. 그는 성전 공터의 북서쪽 끝에 성채를 재건했었고, 마가 안토니(Mark Anthony)를 기념하여 그것을 안토니아(Antonia)라 이름했다. 또한 그는 시온산 서편에 큰 왕궁을 건축했는데 그것은 낮은 벽이 있는 곳에 두 큰 구조물들이 있었고, 숭고한 정원들과 뜰로 둘러 있었으며, 측면에 세 개의 큰 탑들이 세워져 있었다. 이 왕궁 행정 종합 건물은 헤롯왕조 시대에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또 더 후대에는 그것은 주후 1세기 동안 로마 총독들의 관세를 행사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것은 복음서에 언급한 본디오 빌라도의 부라드리움(Praetorium)의 그 자리이다.

그 궁전 지역 남쪽은 무리에게 이미 하스모니안 시대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부유한 자들의 지역이었다. 그 곳은 1976년 이후에 M. Ben-Dor에 의하여 발굴되어 잘 드러났는데 시온산 경사지의 남쪽과 동쪽을 차지하고 있다. Magen Broshi에 의하여 발굴된 고대 도성의 서쪽 성벽의 낮은 경사지들은 헤롯왕시대에 거대한 성벽들이 재건된 것이 드러났다. 그 도시는 스스로 원형극장, 공연장, 극단, 공공건물과 새로 포장한 거리들, 여러 에이커를 덮고 있는 주택들과 아직도 고고학자들의 발굴과 연구를 기다리는 여러 곳들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크기와 인구가 두 배가 되었으며 헤롯의 건물 조정정책과 도시와 지방의 부요가 증가했다.

사진32.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의 비무

“이방인은 성전과 그 암 내에 들이지 말라. 누구든지 그를 붙잡아 계를 죽일 때에 자신의 책임이다...”

특히 유월절과 같은 연중행사인 절기 때에 그 도시의 인구는 수십만이나 운집했으며, 하스모니안 지층의 윗 도시에서 유적들과 적은 유물들은 헤롯시대에 얼마나 부요하고 풍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장대한 무덤들 중에 하나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계사장적이고 귀족적인 가족들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또 예루살렘 주위에 가족 묘지의 증가는 전보다 넓은 묘지를 차지해 왔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예루살렘을 확장하기 위하여 땅을 파는 중에 나타나거나 발굴되었다.

사진33. 헤롯의 성전 뜰과 성전 구조

헤롯은 사마리아의 도성을 확장했으며(그곳은 Augustus를 헬라어로 Sebaste라고 불렀으며), 거기에 아우구스투스 가이사(Augustus Caesar)에게 한 선전을 건축하여 바쳤다. 그는 황제에게 다른 기념물을 헌정했으며, 또 대마카 왕궁에 있는 보화를 금이나 은으로 수백만 달라씩 지불했었다. 그는 여리고에 화려하고 웅장한 겨울 궁전을 개건했다. 스트라톤 망대(Straton's Tower)라 부르는 바닷가에 있는 초기의 베니게 도시에 헤롯은 가이사카의 도시를 세웠으며, 방파제로 기술적인 항구를 만들었고, 탑들로 수호하였다.

사진34. M. Avi-Yonah의 모델에 따른 안트리아 탑

사진35. 예수님과 헤롯 당시의 유다지도

사진36. 가이사카에 있는 수도의 일부분

사진37. 여리고에 있는 헤롯의 겨울 궁전 발굴 풍경

사진38. 사마리아에 있는 헤롯의 거리의 기둥과 유적들

그는 그 도시로 샘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수로를 만들었다. 그는 자기 땅의 경계에 성채와 요새를 구축했고, 자기의 영지 외에도 많은 도시에 공공건물을 세웠다. 안디옥, 로데와 벵가 등이 그런 곳이다. 여리고에 있는 그의 겨울 궁전과 그의 여름 궁전은 대리석 건축물이었고, J. L. Kelso와 R. de Vanx의 발굴로 보여 주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헤로디온과 마사다에 있는 회당은 지금까지 발굴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다.

(3) 1968년 이후에 발굴된 헤롯의 구조물들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적으로 진행된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 1968년에 성전산 주위에서 B. Mazar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발굴들은 로마인들에 의하여 파괴되기 전에 제1세기 제루살렘에서 생활상을 연구하는 많은 증거물들 중에 도움이 되는 증거물들이다. 이에 대한 참고 자료는 요새퍼스의 “유대인의 고대사”(Antiquities of the Jews)와 “유대인 전쟁”(The Jewish War)이라는 그 책에 상세하고 놀랍게 기술되어 있어 잘 알 수 있다.

사진39. 헤롯왕에 의해 세워진 헤로디움(Herodium)

(4) 티로피온과 하부 도시

성전산 서쪽에 있는 도시의 하부 지역을 가로지르며, 또 포장한 도로가 도시의 시설, 상점들과 상점가의 아취들의 유적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티로피온 골짜기는 중요한 행정 도시의 일상생활의 중심과 모든 종류의 상업과 군중들로 우글거리는 곳이었을 것이다. 티로피온 도로는 높은 성전산 공터에 세워진 웅장한 성벽과 성전산 뜰에 있는 비탈길을 지나가는 대문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도로는 Wilson Arch 위를 지나가고 있는 수로 밑에 달리고 있으며, 다른 대문들에서 남쪽으로 갈라지고 있었고 또 고디의 Millo 주택지들 위에 세워진 다윗의 도시(City of David, 또는 오펔(Oni-el))에서 남동쪽을 차지하여 왔다. 그곳은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도성의 남쪽 끝에 실로암 못이 있다. 오랫동안 믿어져 왔던 전설은 반대로 이 도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윗 도시에서 성전산으로 티로피온 골짜기를 가로지른 구름다리 밑을 지나가지 않고, 대신에 그것은 소위 Robinson Arch를 세우게 하고, 남쪽을 바라보는 넓은 대문을 지나서 성전 공터

로 들어간 큰 계단길의 발뿌리로 인도했다. 왕의 주랑(Royal Portico) 또는 Hanuyot는 헤롯 왕에 의하여 건축되었다.

사진 40. 세 개의 대문이 있던 Hulda 대문에 있는

넓은 계단 길 밑에 놓인 지하 방들

남쪽 대문들에 이르기 위하여 돌아서 동쪽을 향해 일어서 그 포장된 도로는 이중(二重)과 삼중(三重)인 Hulda 대문에서 남쪽 부근에 있는 광장 즉 참배자들과 순례자들이 날마다 모여 들었고, 성일에는 큰 무리들이 운집한 오펔 꼭대기와 큰 계단 길에 있는 광장에서 만났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참배자들은 모리아 산 암석에 조각한 수많은 mikachs 또는 침례가 그들의 곁에 의식으로 허락되었다.

많은 급수장, 빗물을 수집하고 또 성전 지역으로 피하는 곳인 가간 낮은 지층에서 발굴되었으며, 또 여러 지하 통로들이 공터 밑에 있는 하부 지층에서 발견되었다. 다른 주랑현관으로 인도하는 비탈길들의 연락망은 모리아 산의 남쪽 경사지를 지나서 레롯에 의하여 세워진 성전의 큰 지하 창고들과 연결되게 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왔다. 수천개의 동전들과 다른 단편으로 된 여러개의 비문들, 돌 단편들과 관습적인 인공물들이 예배의 형식적 행동과 그 산에 있는 만나는 장소와 관계된 혼합된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사진 41. 암소인 예배 제물 광경

그러므로 헤롯은 자기의 권세와 지위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분쇄하기 위하여 잔인하고 잔인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나라를 돌보기 위하여 그만큼 강력하게 노력을 하였다. 즉 백성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했다. 그는 불모의 지역을 식민 개척하고, 도성을 아름답게 꾸미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매우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자를 투자하기도 하였고, 이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금, 은그릇도 분배하여 주었다. 특히 예루살렘 도성은 그의 통치기간에 화려하고 위엄있는 모습을 띠었다. 그는 주전 22년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여 여러 해 동안에 완성하였고, 성전 구역도 확장하였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그 엄청난 공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초공사는 부분적으로 깊이가 45미터까지 내려갔으며, 그 표면 각각은 480×300미터가 넘는다. 그는 가이사랴, 예리고, 그리고 다른 몇 개의 도성들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 극장과 원형경기장도 건설하였다. 그는 헤브론에 있는 극상들의 무덤과 그 북쪽의 마므레 숲지대를 광대하게 확장시켰다. 그 사실은 위에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니 명심하여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또 헤스본(Heshbon)이다. 이 도시는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8마일이고, 예루살렘에서도 동쪽으로 50마일 지점에 있으며, 마다바(Madaba)에서는 북쪽 9마일 지점에 있다. 그곳은 아르논강과 압보강 중간에 위치해 있다. 민수기 21장 25절에서 30절에 따르면, 원래 모압땅이었고 아모리왕 시혼이 모압으로부터 그것을 탈취하였고 자기 나라의 수도로 삼았다(민 21:25).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모세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혼 왕으로부터 빼앗아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줄 때 갓지파와 루우벤지파의 경계였다(민 32:37). 그곳은 루우벤지파가 세진했고(민 32:37), 성경에 여러번 언급되었다

(수 21:39, 대상 6:81, 사 15:4, 16:8- 렘 48:2, 34, 45, 49:3). 후대에는 마카비와 대 해롯왕의 지배를 받았다(Josephus 유대고대사, 13, 15, 4, 15, 9, 5). 그곳은 지금 헤브론의 자리에 놓여 있다.

1975년에 James Saner에 의하여 로마 초기시대, 헬라와 철기시대의 자기와 유적지를 발굴하게 되었다. 다시 1976년에 A, B, C, D 등 지층들을 차례로 발굴하는 중에 그 지역의 면모가 드러났다. 즉 아랍시대를 지나서 제4지층인 Ayyubid(A.D. 1200-1260), 제5지층인 Abbasid(약 A.D. 750-969), 제6지층인 Umayyad(약 A.D. 661-750), 후기 비잔티움세기 제7-8지층이었고, 후기 로마시대가 제15-16지층으로 주후 135-324년이었다.

초기 로마에서 후기 로마시대 1까지인 제15지층에서 제17지층까지가 약 주전 70-193년이었다. 끝으로 후기 헬라시대가 주전 약 198-63년이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지층은 학자들이 계속하여 발굴하는데 아마 모셔와 여호수아시대의 지층도 발굴되리라 보고 있다(원용국, 최신성서고고학, PP.24-58).

이상의 그 구약과 중간기 중에도 신약시대에 영향을 준 것은 중산기 즉 중간사시대인 것 같다. 그 이유는 그 시대가 신약시대의 기반이요, 배경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이하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분명하다.

1. 쿨란 사회와 사해사본이 보여준 배경

쿨란 사회와 사해사본에 대하여는 위의 중간사시대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것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일로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첫째, Essenes의 수도원이 유대광야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 수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말세에 그 앞에 서기 위하여 영적 훈련을 하는 곳이었다. 그것은 “마누엘(Manuel) 훈련고과서”와 “선악의 전쟁기”와 성경주석들이 증거하여 준다. 둘째는, 동굴들이다. 그 지역에서 발굴된 동굴은 100여개나 되었으나, 성경과 관계를 가지고 또 옛센 수도원과 관계를 가진 동굴들은 14개였다. 그 14개의 동굴들에서 성경사본들과 유대인들의 문학작품들이 많이 발굴된 것이다. 그것은 그 동굴은 강건한 신자들의 기도과 성경연구와 거처였다는 것이다. 끝으로, 수도원과 동굴들에서 발굴된 성경사본은 학자들에 의하면 300에서 400개에 육박하였다. 그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대부분이 포함되어있는데 아직 에스더서는 찾지 못했다. 또 성경의 단편들이 아직 10,000개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수도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공부하여 그 동굴에서 성경을 연구하며, 그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를 대망했으며, 말세의 임박을 절감한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이다(중간사시대 참고).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성경주석이나, “선악의 전쟁기”나 기타 다른 문헌의 내용은 그것을 잘 반영하여 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약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1) 시대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수천년 전부터 예언하셨으며,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수 세기 전부터 이미 그의 선구자들과 추종자들을 준비시켜 놓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공생애에 나서기 바로 전에 이미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것이나, 그의 공

생애에 나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을 보더라도 어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며,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 있었다.

세례 요한은 두의 사업에 선구자로 나서기 이전에 어디서 수련을 쌓았으며, 그 준비를 어디서 했는가? 다른 기록들은 모두 다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고고학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는데, 그는 옛센파(Essene)에 속했는지, 또는 그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아닌가 본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활동하는 당시에 그 옛센 수도원과 그 단원들이 그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42. 쿠파 동굴과 옛센 수도원 유적지 모형도

(2) 지리적인 관계

지리적인 관계는 더욱 밀접하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영적 훈련을 받은 곳이 유대 광야이고, 옛센들도 그 광야 하단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대 광야는 사해 북단에서 갈릴리 바다 남단에 이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편 황무지였다.

그곳은 구약시대만 아니라 중간사 시대와 신약시대에도 황무지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다. 중간시대에는 마카비의 독립운동과 전쟁의 요새지로 사용된 전략 요충지였다.

쿠파 사회를 보더라도 그들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곳은 훗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곳에서 그리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므로 이 양자는 지역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진 곳이며, 서로 일치하는 곳이다.

(3) 사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세례 요한의 의상과 음식은 이 곳 동굴 거주자의 의상과 음식과 같았다. 또 세례 요한의 메시야의 대망과 메시야의 내림과 자기의 메시야의 선구자적 사명과 그의 추종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계하는 것은 옛센인들의 신앙과 신학과 몹시 유사하다. 즉 옛센들도 메시야를 대망했고, 내림을 믿었으며, 그들의 지도자인 “의의 선생”(Righteous Teacher)은 메시야가 아니라 메시야의 선구자로서 메시야에게 그 전 단원을 일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자들 간에 두 가지 의견에 있다. 옛센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부인하지만, 이산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의 관계를 부인하기 곤란할 시경이다. 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미리 준비하여 두셨다는 것이다. “여호와 이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

2. 로마의 역사적 배경

그 당시의 로마의 역사는 그 당시의 세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로마는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였고, 로마의 영향력과 문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으며, 또 그들의 군대의 발발굽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은 그 로마가 한참 세도를 부리고, 융성하던 황금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로마가 유다국을 속국으로 삼아 지배하고 있던 때이다. 그러므로 로마시대는 신약시대의 중요한 배경이며, 로마시대의 고고학은 신약 고고학이 좋은 보금이다.

로마 세계는 신약만 아니라 그 후인 기독교에도 역사적인 산물을 가져다 준 것이 매우 크고 값지다. Merrill F. Unger는 자기의 저서 *Archaeology and the New Testament*에서 세 가지 면으로 지적했는데 첫째가 역사적인 면이고, 둘째가 지리적인 면이고, 또 문화적인 면이다. 즉 로마는 헬라를 정복하고, 헬라의 주권을 이어 받았다. 로마가 헬라를 정복한 것은 정권이요, 헬라인들이 세계사에 건설하여 놓은 문화 유산을 뒤엎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몹시 호전적이고, 잔인하고, 강포하며, 거만한 로마는 헬라의 찬란한 문화의 역사를 가꾸어 놓은 그 유산 앞에 항복하고, 그 유산의 지배를 받아 자기들의 불모지를 개간하고 황폐한 역사의 화원에 헬라의 문화의 꽃을 피워서 헬라-로마의 문화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므로 역사가들은 “로마는 헬라를 권력과 정권으로 점령했으나 역사와 문화면으로는 정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일명 “헬라적 로마세계”(Graeco-Roman World)라고 한다.

둘째는 지리적인 문제이다.

전에 보고 생각한 것과 같이 로마는 광대한 세계를 자기들의 무력으로 점령 지역을 다스렸다. 그 실례가 유다에 로마의 총독을 보내어 다스렸고 로마의 군인을 주둔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 군대는 많지 않았다. 로마는 유사시에 각 나라에 주둔하는 군대를 지원하고 작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리적인 악 조건을 극복하고 개선하여 나갔다. 즉 지중해에는 많은 배를 건조하여 띄워서 육지, 가이사랴, 두로, 시돈 항구와 로마를 연결하였다. 육지에는 길과 같은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여 사냥 요달하게 하였다. 그래서 로마의 교통은 육·해상으로 매우 편리하고 크게 발달하였다. 군인들은 만과 병기로 기동성을 발휘하였다. 이에 부수적으로 얻은 것은 교역과 문화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되었고, 세계가 축소되어 하나의 권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셋째가 문화이다.

로마의 문화는 미미했다. 그래서 로마는 헬라의 문화를 받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 마치 헬라 사람에게 로마 옷을 입혀 놓고 로마 사람처럼 분장해 놓은 형편이었다. 로마 세계는 헬라어를 국제 언어로 사용했으며, 헬라 문화를 이용하여 로마의 정치와 사상을 추진했으며, 헬라인의 것을 취사선택하여 로마의 것으로 개조한 것이 역사적으로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신비한 것은 그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헬라적 로마를 세우시고 그것을 이용하여 세계 구속의 역사를 행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당시 세계에 태어나게 하여 만민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케 하셨다.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통일된 세계에 편리하고 발달된 육상 해상의 교통을 이용하여 구속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헬라적 로마의 문화 수레에 복음을 실어서 세계의 모든 곳으로 운송하게 하셨으며, 심령들 속에 골고루 보급하고, 그 복음의 위력에 점화된 불꽃들이 곳곳에서 발화하여 복음화 되게 하였다.

3. 유대 역사가 보여주는 배경

유대 역사 중에 신약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 “중간사시대”이다. “중간사시대”는 5기로 나누인다.

제1기, 피사시대(주전 537-333).

제2기, 헬라시대(주전 333-167).

이때는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통치했으며, 그는 유대인들에게 크게 호의를 베풀었고, 히브리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다. 또 그의 식후에 헬라 세계가 4분될 후에 애국의 헬라왕 프톨레미(Ptolemy II Philadelphus=주전 235-274)는 알렉산드리아의 한 관리의 제의로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70인경(학명, LXX.=Septuaginta)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유명한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배출되었는데, 그 예를 필로(Philo)이다.

그러나 유대 국내에서는 이방인 통치자에게 아부하고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탐하여 부패와 부정과 투쟁을 일삼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유대교에까지 파급되어 신성한 제사장직을 가지고 그 권리를 남용하여 그 직과 제사장직을 매매하고 성전을 고독하고 작당하여 범죄하게 되었다.

제3기, 마카비시대(주전 176-135).

이 일에 대항해서 일어난 이들이 마카비이다(Macabees). 마카비시대는 40년간(주전 167-135) 계속되었는데, 외국의 세력에서 독립하여 지내다가 다시 전복되고, 다시 이방의 통치 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4기, 하스모니안 왕조(주전 135-63).

이 시대는 마카비시대가 끝나고 제사장 하스모니안가(家)에 속한 제사장들이 통치하던 시대이다. 이 때는 유대 국내에 여러 당파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셀파 등이다. 이들은 계속하여 분쟁하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세계사에 오점을 남겼다.

제5기, 로마의 수하에 있는 헤롯 왕조(주전 63-주후 70).

이 때에 이미 헬라는 망했고, 그 헬라를 멸망시킨 동로마 세력인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때인데, 그 로마는 팔레스틴과 유다도 지배하던 때이다. 로마는 유다에 대하여 처음에는 강경책을 쓰다가 후에는 융화정책을 썼는데, 유다에 로마의 총독과 유다 분봉왕을 병립하여 세워 이끌고 나갔다. 그 때의 총독은 안티파스와, 왕은 하이카노 2세였다. 그러나 그 왕조는 무너지고 헤롯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초대 왕이 대 헤롯이다. 이 대 헤롯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 그 때 내하여는 위에 논하였으므로 참고하라.

위의 시대를 총괄하면 유대 종교적인 시대이다. 유대교가 유다를 통치하였으며, 또 외국 세력과 투쟁하던 시대이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대교를 대표하는 “메노라”(Menorah)가 곳곳에 조각되어 있다. 이 메노라(촉각)는 예루살렘 성전에 조각되어 있었고(왕상 6:-7:), 마카비시대의 통치자였던 안티고누스(Antigonis=주전 40-37)의 동전에도 새겨져 있었으며 헤롯왕의 제3 성전에도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Josephus의 유대 고대사 주전 20). 그 후에 주후 70년에 티토(Titus)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노략되었는데, 그 때에 이 메노라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노략되어가는 것이 로마에 있는 지도 장군의 아취의 조각에 나타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벤 세아림에서 발굴된 지하묘지에서 그 메노라가 반군되었는데 주후 2-4세기의 것이다.

사진43. 벤 세아림의 지하묘지의 벽에 있는 일곱각지의 메노라

사진44. 엔게디에서 1970년에 발굴된 메노라

이런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 참 생명과 참 진리를 주지 못했으며, 헬라나 로마의 그 어떤 종교도 세계인의 심령에 만족이나, 생명과 진리를 주지 못했다. 굶주리고 갈갈한 인간에게 모든 여건이 성숙된 그 때에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셨다. 의도와께서 준비하시고, 그가 이루셨다(원용국, Ibid, PP.61-69).

마태복음주석

마태복음은 사복음(四福音)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중에 하나로 첫 번째이고, 공관복음(共觀福音)인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 중에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시작이요, 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것은 구약에서 한세기연구와 같다. 그 창세기 중에서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가 중요한 것과 같이 마태복음도 그러하다. 이 마태복음의 서론에서는 1. 복음서의 통일성과 함께, 2. 마태복음의 저자와, 3. 그 저작연대에 관하여 연구하고, 4. 그 마태복음의 저작 장소, 5. 마태복음의 시대와 목적에 관하여 연구하고, 6. 마태복음의 제목과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7. 그 주석에 들어가겠다.

1.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의 통일성

이미 앞에서 이 마태복음이 사복음 중에 첫째이고, 그리고 공관복음에서 첫째라고 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그 저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다. 이에 관하여도 T. France는 그의 마태복음주석에서 그 마태복음의 중심은 복음이다. 이 진리는 공관복음이 그 요한복음이나 다 일치한다. 그런데 그 공관복음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의 신앙과 신학과 그 복음을 믿을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1) 유대 기독교인의 복음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은 신하여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함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다(행 1:8, 2:1-끝, 9:1-28:). 또한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번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실천하여 성취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의 기원은 무엇인가 인데 그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창 1:-2:) 하나님의 말씀을 본손종치고 뱀(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에덴동산에서 내어 쫓기 전에 “여인의 씨”(창 3:15)와 “가죽옷”(창 3:21)을 시작으로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를 통한 노아의 식구들과 그 안에 들어 보낸 짐승들의 구원(창 6:-9:)을 위시하여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와 멸망의 자리에서 유월절 양을 잡을 통한 구원(출 12:)과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인 도량(?????)를 통한 성막을 건축하여 그것을 중심하여 행진과 진침을 거쳐서(출 25:-신명기) 가나안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시대에 쇠막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끝 나갈 즈음에 신약시대가 와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택함을 받은 자들의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과 칭의와 성령의 감동과 충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세계 복음화이다.

그 구약의 메시야이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다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그 복음의 근거와 출처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그 복음은 맨 처음에 “마가에 의한 복음이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이와는 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복음이다 이다. 이것에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 그러나 요즘 현대주의 신학자, 소위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그 마가복음도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이전에 Q 자료설을 주장하여 영감설과 복음설을 흐리게 하고, 신앙과 신학에 혼란과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Richard A. Edwards의 A Theology of Q(Fortress, Press, Philadelphia, 1975)이고, 한국 신학계에서는 소기천(장로회신학대학교 성서학연구원장)씨의 “예수 말씀 복음서 Q 개론”(대한기독교서회, 2004)이다. 이들 이론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생애에 관한 단편 문서들이 전승되어 오다가 마가에 의하여 편집되었고 그 마가복음이 마태에게 영향을 참고가 되어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이론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는 John Kloppenborg의 “Q의 양식”(The Formation of Q)이다. 그 Kloppenborg의 Q 가운데 그 지혜의 말씀들이 분석은 Q 안에 양식적인 요소인 지혜의 말씀들과 훈계들의 수집으로 되었다는 그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 수집은 근본적으로 추가되고, 가필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잠언과 경구의 가필 완고한 이스라엘을 넘어서 파멸을 앞당한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거쳤다. “이 양식적인 단계는 Q1의 계획 단계이고, 6 지혜 말씀들이 포함되고, Q2의 큰 개정장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Paraenetic 권장과 교훈적인 사고들에 의하여 추가되었다. 그 여섯의 지혜의 말씀들은 그가 목록을 작성했는데

1 Q 6.20b-23b, 27-35, 36-45, 46-9;

2 Q 9.57-60, (61-2); IO.2-II, I6, (23-4?);

3 Q II.2-4, 9-13;

4 Q 12.2-7, II-12;

5 Q 12.22b-31, 33-4(13.18-19, 20-1?); 또 아나

6 Q 13.24; 14.26-7; 17.33; 14.34-5

(Markus Rockmühl/Donald A. Helgner,

The Written Gospe, Cambridge, P.45)

이다. 이 Q의 문서에 근거하여 공관복음만 아니라 신약전체를 해부하고 파괴하는데 그 실예를 들면
도마복음II, 2 49,27-31(로기온 100)의 찬송궤도

국가권력과 관계된 예수말씀의 간증이 어떤 변천 과정을 겪으면서 에데사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도마복음
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먼저 도마복음을 공관복음식과 비교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도마복음 100

마태복음 22:17-21

마가복음 12:14-17

누가복음 20:22-25

그들이 예수에게 금화 하나를 보이면서 말하였다. 가이사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하나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바
치고, 내 것은 내게 바치라.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
하니이까 한 대

18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 왔거늘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뭐 것이냐?

21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께 바치라 하시니

14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라도 꾀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
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
까? 불가하니이까?

15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 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학대를 가지다가 내게 보이라 한지니

16 가져왔거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글이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라 하시니

17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22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각하냐? 불가하냐? 하니

23 예수께서 그 잔대를 아시고 가라사대

24 데나리온 학대를 내게 보이라 뉘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는냐? 대답하되 가이사라 하시니

25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소기천, 예수말씀복음서 Q 개론, 대한기독교서회, PP.184-85)

또한 마태복음 3-11장의 순서

신학적으로 논의된 지혜선승과 구약에 관한 보수적 해석과 선풍적 원안은 마태복음이 Q를 따르도록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마태복음 3-11장의 큰 틀도 Q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도록 하였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자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12-28장의 순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이지 마태복음 3-11장에서는 마가복음이 단지 종속적인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마태복음의 순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료는 Q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3-11장이 어떻게 Q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순서를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서로 비교·정리해 보자.

주제

Q의 순서

마태복음의 순서

마가복음의 순서

1. 세례 요한

3:5552b

3:1

1:4a

2. 요단

3:3a

3:5a

3. 이사야 예언

3:3b

3:5b

1:2a-3

4. 독사의 자식들

3:7 3:7 1:5

5. 심판 선언

3:8-9 3:8-9 +

6. 오시는 이

3:16b

3:11

1:8a, 7b, 8b

7. 꺾이지 않는 불

3:17 3:12 +

8. 예수의 세례

3:21

3:13, 16a

1:5, 9

9. 사랑하는 이들

3:22

3:16b-17

9:7b-c

10. 시험 이야기

4:1-13 4:1-11

1:12-13a

11. 나자라

4:16

4:13a

6:1-2a

12. 가버나움

4:31

4:13b

1:21

13. 산상설교(1)

6:20-23 5:3-12 +

14. 산상설교(2)

6:27-28, 35c-d

5:43-5 +

15. 산상설교(3)

6:29-31 999 5:38-42, 7:12+

16. 산상설교(4)

6:32, 34, 36 5:46-48 +

17. 산상설교(5)

6:37-38 7:1-2 4:24

18. 산상설교(6)

6:39 15:14 +

19. 산상설교(7)

6:40

10:24-25a

+

20. 산상설교(8)

6:41-44, 1

7:3-5, 18-19, 12:33b

21. 산상설교(9)

6:44b-c

+ +

22. 산상설교(10)

6:45 12:34-35 +

23. 산상설교(11)

6:46-49 7:21, 24-27 +

24. 산상설교(12)

7:1a

7:28a

+

25. 가비나움

7:1b-

8:5a

2:1a

26. 백부장 믿음(1)

7:3

8:5b-7

5:22-23

27. 백부장 믿음(2)

7:6b-9

8:8-10 +

28. 백무장 믿음(3)

7:10 8:13 7:30

29. 요한의 질문

7:18-19, 22-23 11:2-3, 4-6 +

30. 요한에 관해(1)

7:24-26 11:7-9 +

31. 요한에 관해(2)

7:27 11:10 1:2

32. 요한에 관해(3)

7:28 11:11 +

33. 요한을 배척

7:29-30 21:32 +

34. 지혜의 자녀

7:31-35 11:16-19 +

35. 제자도

9:57-60 8:18-22 +

36. 추수의 주님

10:2 9:37-38 +

37. 양을 이리 중에

10:3 10:16 +

38. 가지시 말라

10:4

10:9-10a

6:8-9

60

39. 집에 들어가

10:5 10:12
6:10a-b

40. 평화의 아들

10:6 10:13 +

41. 마땅한 대접

10:7-8
10:10b-11
6:10b-c

42. 병자를 고치라

10:9 10:7-8 6:12-13

43. 먼지를 털라

10:10-11 10:14 6:11

44. 소돔

10:12 10:15 +

45. 세 고을

10:13-15 11:21-24

46. 너를 영접하면

10:16 10:40 9:37

47. 감사 기도

10:21-22 11:25-27

48. 주의 기도

11:2b-4
6:9-13 +

49. 기독의 확실함

11:9-13 7:7-11 +

50. 바알세불 논쟁(1)

11:14 9:32-33 +

51. 바알세불 논쟁(2)

11:15 9:34 3:22

(소기천, Ibid, PP.208-210)

이 이론의 허점은 ① 구약에 대한 지브리의 신학의 문서설에 근거한 것으로 저자의 “모세오경”에서 이에 대한 바론과 이사야 주석의 종론을 참고하라. ② 성서도 고학적으로 이에 관한 어떤 사본이나 문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고, 신약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다(저자의 “최신성서고고학”, 구약편, “성경사본과 고대근동 사본 비교연구”를 참고). ③ 성경에 근거한 참 신앙과 진리를 떠난 이성과 철학적 신학자들의 사상과 그릇된 신앙은 그 어떤 신학적 이론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도외시하는 것이 그 결론이다.

이들의 학설은 모세오경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이 보조주의자의 문서설인 J. E. D. P. H의 재판이다. 그들은 신앙과 신학적인 것 보다는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면에서 성경에 접근하는데 신약의 복음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지만 신학자들에게 의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고 했다(신 4:2, 12:32, 민 22:18, 잠 30:5, 렘 26:2).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은 더욱 그러하다. 이 마태복음의 대 신학적인 전제는 구약의 소망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기대와 대상임을 보여 준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의 모습이나, 구약의 관습에 따른 예수의 생활이나, 유대인 서기관들의 교훈의 전통이나 유대인의 종교적 국민적 공적인 표현을 각색하는 자들에 대한 질타와 유대주의 기독교 교회의 성격을 잘 언급하고 있다. 이것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인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비 기독교인인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망어하면서 유대인의 뿌리와 관계된 자아인식을 자아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의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마태의 헬라어의 열마는 셈어적(Semetic)인 것이 유대인 독자들에게 적응이 되었는데 raka(5:22) 또는 Korbanas(보화 27:6)이고, 또 속을 씻는 전통처럼 유대인의 관습을 설명 없이 사용한 다”(15:2). 반대로 마가는 이방인의 독자들을 위하여 이 관습을 설명한다(막 7:3-4). 또한 “옷에 차는 경문”(마 23:5) 자기의 독자들에게 유대인의 문화를 소개한다. “예수”라는 이름도 그 의미의 설명은(1:21) 히브리적 의미인 것을 자기의 독자에게 설명한다. 그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1:1-2) 그의 족

보를 시작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서 끝마친다. 그는 마가와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늘나라”를 규칙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10:1-6, 15:24) 제한 될 뿐만 아니라 또한 10장 5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언급한 것은 이 복음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언급한 유일한 것이다. 반대로 누가에게서는 그렇지 않다. 한 또는 두 절에서 유대인의 서기관 의 교훈을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만(23:3, 23) 서기관의 전통의 문제를 복음에서는 다만 언급하는 것뿐이다. 또 특별한 언급이 많은데 금식하는 문제(6:16-18), 안식일 문제(12:1-14, 24:20, 성전 제물들 (5:23-24)과 성전세(17:24-27)이다(R. T. France Ibid, PP.19-20 참고).

2) 모든 민족들을 위한 복음

그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기록한 같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제자들을 삼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어 승리하는데서 끝이고 자기의 사역을 그 복음을 28장 19절에서 선포할 것을 명령한다. 이와 같이 분명히 유대인의 뿌리에 근거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소망과 운명이 끝나지만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유대주의와 유대인의 특권이 끝나면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육신적이고 국가적인 것보다는 영적이고 신앙과 진리적인 것인데 마태 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요한의 복음은 반유대적인 유대인과는 비교가 된다. 마태는 긍정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은 지금 비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특권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부르신다. 특별히 그 공적인 지도자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예수에 의하여 되어진다. 이들 공동체는 유대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사역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근거한다.

그 대부분의 유대인의 복음은 유대인과 관련된 것이나 다수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8장 10-12절, 21장 43절, 23장 29-39절, 27장 24-25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자료들이 좀 더 확대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 강하게 재조명된다.

모든 유대 기독교인 저자들은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반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부르심에 “나쁜 자”가 있는데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실한 메시아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목적이 중심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롬 9:6) 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이다 (Ibid, PP.20-22 참고).

3) 교회를 위한 복음

마태의 복음은 “가끔 그 교회론적인 복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 복음은 ?κκλησις(16:18, 18:17)라는 단어에 포함된 것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각각)에서 유래된(시 4:13, 14:1... 자 7:14, 8:3...) 것으로 그 구성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고, 주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인 공동체이

다. 그 교회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몸”(엡 1:22, 골 1:18, 고전 12:27), “성령의 전”(고전 3:16, 엡 2:21, 벧전 2:5), “새 도는 하늘의 예루살렘”(계 3:12, 21:2, 히 12:22), “새 예루살렘”(마 21:43, 갈 3:29, 벧전 2:9), “진리와 기쁨과 너”(딤후 3:15), “하나님의 진숙”(갈 6:10), “그리스도의 신부”(마 9:15, 25:1-12, 막 2:19, 눅 5:34-35, 요 3:29, 계 19:7)라고 했다(M. C. Tenney, Vol.I, P. E of Bible, PP.847-848 참고). 이 교회는 약하나(마 13:17)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회합”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기독교인 공동체를 “나의 교회”라고 했고, 초기에 바울은 “그 교회들”(고전 15:9, 갈 1:13)이라고 했고, 구약에서는 “선택된 자들의 집단과 기구”였다(마 16:18).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필요한 신앙 안에서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훈과 교회 지도자들의 목회 임무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여 주는데 안식일(12:1-14)과 이혼(5:31-32, 19:3-9)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더욱이 구약의 말씀(5:17-48)과 넓게 도전받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전통의 실수를 바른 구약적 적용에 관하여 토론한다. 10장에서는 핍박에 대한 대처방법과 18장에서는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 교제문제와 범죄자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에 대한 경고가 7장 15-20절과 24장 4-5절, 11절, 23-26절에 있고, 전문적인 공동체 간에 참된 제자들과 거짓 제자들 사이에 정죄의 필요가(7:6, 13-27, 13:24-30, 36-43, 47-50, 22:10-14) 언급된다. 이 모든 것을 마태복음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하고, 제자들에게 필요불가결적인 것을 강조한다.

이 마태복음의 근거는 Qumran 공동체 규약(IQS)과 같이 “훈련 교본”(Manual of Discipline)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태와 다른 복음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마태가 그의 복음에서 시도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교훈과 지도력에서 실제적인 가치 있는 것을 언급하며 “예수의 생애”의 근거임을 인식시키고 또 그 내용의 모두가 주의 교훈과 교리적인 재료라는 것이다(Ibid, PP.22-23 참고).

4) 주의가 필요한 복음 구성

우리가 마태복음을 내용적으로 연구하여 볼 때에 그 구성이 있어서 주의와 문사적인 구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다. 그것도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것 보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과 능력으로 영적이고 신령한 은사로 최선을 다하여 그 복음의 자라들 모아서 편집하고 또 편집하여 기록하여 형성한 것이다. 이 일에는 유기적인 영감으로 그의 경험과 그의 재능과 감사와 감격의 복음에 스며들어서 쉽게 기억하고 대칭되는 교훈 부분과 극적인 충격적인 효과를 균형은 이루면서 마태가 대화하기를 원하는 이야기와 말들을 연결시켜서 취합 기록하는 것이다.

주의 깊은 대화자인 마태는 자기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잘 알아서 일어난 일의 내용을 생략하면서도 마가가 생동적으로 말한 이야기를 확대도 하고 보충도 하고, 형상화 하고, 다대 작가가 원하는 이야기를 기술하는데 마가는 5장에서 43절인데 반하여 마태는 8장 28-34절, 9장 18-26절로 14절들이나 더하였다.

이와 같이 마태는 이야기의 화자로 축소할 것을 축소하고 더할 것은 더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최대로 발휘하는 그 모습을 매우 능력적으로 기술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자신에게 주신 주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복을 최선을 다하여 발휘하게 된 것이다.

5) 기록에 근거한 복음

The Companion Bible(The New Testament)의 마태복음의 기록구조에 의하면 “주의 네 가지 사역”을 (4:12-26:35) 보라 두는데

제1시대(4:12-7:29)

주제 : 그 왕국의 선포와 회개, 신강교훈(5:1-7:29)

그 왕국의 법

제2시대(8:1-16:20)

주제 : 그 왕의 선언, 추로써의 그의 인격(8:2, 6, 8)과 “인격”(8:20),

창조의 이적들, 그의 신성의 나타남, 사랑과 그의 인간성

제3시대(16:21-20:34)

주제 : 왕을 거부

제1고난, 선언(16:21-17:13), 이적

제2고난, 선언(17:22-19), 이방인과 권세

제3고난, 선언(20:17-19), 이방인과 권세

제4고난, 선언(20:28), 소경과 이적, 고난과 영광(16:21-88)

제4시대(21:1-26:35)

주제 : 그 왕국의 거절, 시대 변화된 비유와 교훈, 금람산의 설교(24:1-25), 이적들,

선지자들과 마른 무화과나무(마 11:12-14, 20-21)

모든 복음은 구약을 분명히 인용도 하고 그리고 암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마태에게만 이 모습이 더욱 분명하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그의 유명한 형상적 인용문에 근거하여 예수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소망과 원형의 성취로 나타난 신학적 사고이다. 누구도 마태에게서 이 제목의 종교성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그의 기쁨과 그의 강조하는 주장으로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시켜 보여 준다.

마태에 의하여 구약을 사용한 특성의 연구는 오늘날 K. Stendahl의 Qumran의 발굴물들을 신약과 구약을 대조하여 연구한 것이나 R. H. Gundry의 “마태복음 속에 구약 사용”(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st Matthews Gospel)이 있다. 그 외에도 M. D. Goulers Midrash and Lesson in Matthew와 G. D. Kilpatrick의 마태복음 등이 있다(R. T. France, Ibid, PP.25-26 참고). 이들은 ① 마태가 마가와 같이 미드라쉬를 같은 관념과 기술로써 사용하지 않고 다른 관념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고,

② 주후 1세기의 유대인들이 넓게 퍼져 있는 구약의 영향을 깊은 내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고, ③ 보통 비기독교적 유대주의를 나타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실적이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본 것이고, ④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에게서 완수되었는데 구약의 배경과 그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나(Heid, pp.24-29 참고). 그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Kurt Aland, Matthew Black, Carlo M. Martini, Bruce M. Metzger, and Allen Wikgren의 The New Testament(1996)의 부록에 Index of Quotations에서 구약 창세기 1장에서 말라기까지가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인용한 그 막대한 부분을 보아서 신약의 근거는 구약이고 그 구약은 신약의 해설과 응합에서 찾아야 함은 물론 신약은 본가본국의 귀중한 복음이고 인류의 두 유방이다(M. Luther). 그 중에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예언과 신약 성취”(조영엽, 기독교론, pp.74-75)를 보아도 알 수 있다.

Antenna House
AH Formatter
Evaluation

Antenna House
AH Formatter
Evaluation

Antenna House
AH Formatter
Evaluation